

四象體質의 鑑別法과 病理的 特性에 관한 考察

裴文庸 · 金聖勳*

I. 緒 論

體質은 個體의 形態의 · 機能的 特性으로서 疾病의 發生과 治療方法에 影響을 주기 때문에 東西洋을 막론하고 오래 전부터 體質區別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연구되어 왔다.¹⁾

西洋에서의 體質類型理論으로는 히포크라테스(BC 400~375), 갈레누스(AD 130~201), 크레츠머(1888~?)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現代에 이르면서 이들 學說은 心理學 내지 精神病態學의 面에 주로 치중하여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²⁾ 그러나 東洋에서는 人체를 精神과 肉體로 分離된 個體로 인식하지 않고, 전체적인 整體로 인식하는 醫學的 體質類型分類가 시도되어 왔다. 東洋醫學 最古의 原典인 《黃帝內經》의 《靈樞 · 陰陽二十五人篇》과 《通天篇》에서 二十五人과 五態人의 分類를 찾아볼 수 있고, 張介賓³⁾은 陽臟之人과 陰臟之人을 구분한 기록이 있으나 이들 說은 外貌와 態度의 特性 또는 陰陽의 偏重에 重點을 두었을 뿐 실제 臨床醫學으로서의 계속적인 研究와 實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⁴⁾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말기에 李濟馬(1837~1900)가 四象醫學의 理論을 제창하여 體質은 개개인의 臟腑大小機能의 特異性에 의해 決定되며 環境이나 地理的 條件에서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

다. 이러한 體質의 特性은 生理 · 病理狀態 등은 물론, 藥에 대한 反應과 心理狀態 및 性格, 言行, 飲食의 嗜好나 適性에 이르기까지 특수한 개인차를 갖게 된다고 함으로서 지금까지의 여타 體質分類보다 진보한 이론을 주장하였다.⁵⁾

體質醫學은 증전의 醫學이 모든 人間을 획일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생긴 誤治나 藥의 副作用을 일소하고 體質의 攝生과 治療로 질병의 예방과 완전한 治療의 길을 제시하였다 볼 수 있다. 그러나 精確한 體質類型을 診斷이 선행되어야만 올바른 治療方向을 모색할 수 있는 까닭에 體質辨證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으며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東武 이래 많은 醫家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體質辨證 基準을 論하고 現代의 各種 研究가 시도되어왔다. 이에 著者는 東武가 그의 著書에서 밝힌 각 體質類型別 病理的 特性을 중심으로 變證要素를 살펴보고 아울러 東武以來의 여러 醫家說을 檢討하여 각 體質辨證法의 長短點을 比較 考察해 보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體質의 類型과 病證에 대해서 調查하고, 여러 醫家들의 獨特한 體質類型의 鑑別方法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研究를 실시하였다.

1. 體質類型에 관한 理論을 먼저 《黃帝內經》 등 역대 문헌을 통하여 考察하여 살펴보고, 《東醫壽世保元》의 내용에 따라 四象體質로 分類定理하여,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먼저 각 體質 類型별로 外貌(體型氣象, 容貌詞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1) 박영배 · 김태희 편저, 한방진단학<II> 辨證, 서울, 성보사, 1986 p. 149

2) 盧正祐, 四象醫學總論, 서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1972. pp.23~29

3)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39

4) 金聖勳의2人, 東醫病理學, 대전, 도서출판 한림원, 1994, pp. 274~276

5) 盧正祐, 四象醫學總論, 서울, 慶熙大學校 韓醫學部, 1971. p.1

氣),心性(性質才幹,恒心,性氣,情氣,心欲등) 특성을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精選 韓國의 體質理論>을 바탕으로 고찰하였다.

두 번째로 體質類型別로 病證을 정리하고 <四象醫學>에 나타난 病證別 해설을 參照하여 고찰하였다

2. 여러 體質鑑別方法을 比較하기 위하여 體診, 藥診, 鍼診, 脈診, 기타 鑑別法으로 診斷에 有用한 順序대로 整理 考察하였다.

3. 本 論文에 사용한 부호는 引用文獻은 <>, 引用篇은 <>, 引用文과 篇을 함께 쓸 때에는 <·>로 하여 가운데 방점을 찍었다.

III. 本 論

1. 黃帝內經에서의 體質類型論

(1) 黃帝內經 陰陽二十五人篇⁶⁾

天地之間,六合之內,不離於五,人亦應之.故五五二十五人之政,而陰陽之人不與焉.其態又不合於衆者五……

1) 木形之人,比於上角,似於蒼帝,其爲人,蒼色,小頭,長面,大肩,背直,身小,手足好.有才,勞心,少力,多憂,勞於事,能春夏,不能秋動,感而病生足厥陰,佗佗然,大角之人比於左足少陽,少陽之上遺遺然.左角之人,比於右足少陽,少陽之下隨隨然.鈇角之人,比於右足少陽,少陽之上推推然.判角之人,比於左足少陽,少陽之下括括然.

2) 火形之人,比於上徵,似於赤帝.其爲人,赤色,廣胛,脫面,小頭,好肩背脾腹,小手足,行安地,疾心,行搖,肩背肉滿,有氣輕財,少信,多慮,見事明,好顏,急心,不壽暴死,能春夏,不能秋於,秋冬感而病生,手少陰,核核然.質徵之人,比於左手太陽,太陽之上,肌肌然,少徵之人,比於右手太陽,太陽之下,悒悒然,右徵之人,比於右手太陽,太陽之上,皦皦然,質判之人,比於左手太陽,太陽之下,支支頤頤然.

3) 土形之人,比於上宮,似於上古黃帝,其爲人,黃色,圓面,大頭,美肩背,大腹,美股脛,小手足,多肉,上下相稱,行安地,舉足浮安,心好利人,不喜權勢,善附人也,能秋冬,不能春夏,春夏感而病生,足太陰,敦敦然,大宮之人,比於左足陽明,陽明之上,婉婉然,加宮之人,比於左足陽明,陽明之下,坎坎然,少宮之人,比於右足陽明,陽明之上,樞樞然,左宮之人,比於右足陽明,陽明之下,兀兀然.

4) 金形之人,比於上商,似於白帝,其爲人,方面,白色,小頭,小肩背,小腹,小手足,如骨發踵外,骨輕.身清廉,急心靜悍,善爲史,能秋冬,不能春夏,春夏感而病生,手太陰,敦敦然.鈇商之人,比於左手陽明,陽明之上,廉廉然,右商之人,比於左手陽明,陽明之下,脫脫然,左商之人,比於右手陽明,陽明之上,監監然.少商之人,比於右手陽明,陽明之下,嚴嚴然.

5) 水形之人,比於上羽,似於黑帝,其爲人,黑色,面不平,大頭廉頭,小肩大腹,動手足,發行搖身,下尻長,背延延然,不敬畏,善欺給人,戮死,能秋冬,不能春夏,春夏感而病生,足少陰,汗汗然.大羽之人,比於右足太陽,太陽之上,頰頰然,少羽之人,比於左足太陽,太陽之下,紆紆然,衆之爲人,比於右足太陽,太陽之下,契契然.桎之爲人,比於左足太陽,太陽之上,安安然.是故五形之人二十五變者,衆之所以相欺者是也

(2) 黃帝內經 通天篇⁷⁾

蓋有太陰之人,少陰之人,太陽之人,少陽之人,陰陽和平之人.凡五人者,其態不同,其筋骨氣血各不等.

1) 太陰之人,貪而不仁,下齊湛湛,好內而惡出,心和而不發,不務於時,動而後之,此太陰之人也.

太陰之人,多陰而無陽,其陰血濁,其衛氣色,陰陽不和,緩筋而厚皮,不之疾瀉,不能移之.

太陰之人,其狀黧黧然黑色,忿然下意,臨臨然長大,臃然未僕,此太陰之人也.

2) 少陰之人,小貪而賊心,見人有亡,常若有得,好傷好害,見人有榮,乃反慍怒,心疾而無恩,此少陰之人也.

6)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台北, 藥君出版事業有限公司, 1977. pp.440~451

7) 楊維傑, 上揭書, pp.500~509

少陰之人, 多陰少陽, 小胃而大腸, 六腑不調, 其陽明脈小, 而太陽脈大, 必審調之, 其血易脫其氣易敗也.

少陰之人, 其狀清然竊然, 固以陰賊, 立而躁險, 行而似伏, 此少陰之人也

3) 太陽之人, 居處于于, 好言大事, 無能而虛設, 志發於四野, 舉措不顧是非, 爲事如常自用, 事雖敗, 而常無悔, 此太陽之人也

太陽之人, 多陽而少陰, 必謹調之, 無脫其陰, 而瀉其陽. 重脫者易狂, 陰陽皆脫者, 暴死, 不知人也.

太陽之人, 其狀軒軒儲儲, 反身折脛, 此太陽之人也.

4) 少陽之人, 諛諦好自貴, 有小小官, 則高自宜, 好爲外交, 而不內附, 此少陽之人也.

少陽之人, 多陽少陰, 經小而絡大, 血在中而氣外, 實陰而虛陽. 獨瀉其絡脈, 則強氣脫而疾, 中氣不足, 病不起也.

5) 陰陽和平之人, 居處安靜, 無爲懼懼, 無爲欣欣, 婉然從物, 或與不爭, 與時變化, 尊則謙謙, 譚而不治, 是謂至治.

陰陽和平之人, 其陰陽之氣和, 血脈調, 謹診其陰陽, 視其邪正, 安容儀, 審有餘不足, 盛則瀉之, 虛則補之, 不盛不虛, 以經取之, 此所以謂陰陽, 別五態之人者也.

陰陽和平之人, 其狀委委然, 隨隨然, 顛顛然, 愉愉然, 豆豆然, 衆人皆曰君子, 此陰陽和平之人也.

2. 東醫壽世保元에서의 體質類型論

(1) 外貌에 따른 體質분류

1) 體刑과 氣象에 따른 구분⁸⁾

太陽人の 體形氣像은 腦佳頁之起勢 盛壯 而腰圍之立勢 孤弱하고

少陽人の 體形氣像은 胸襟之包勢 盛壯 而膀胱之坐勢 孤弱하고

太陰人の 體形氣像은 腰圍之立勢 盛壯 而腦佳頁之氣勢 孤弱하고

少陰人の 體形氣像은 膀胱之坐勢 盛壯 而胸襟之包勢 孤弱하다 하였다.

2) 容貌詞氣에 따른 구분⁹⁾

太陽人の 容貌詞氣는 腦佳頁之起勢強旺하고 性質은 疏通하며 又有 果斷하다.

少陽人の 容貌詞氣는 上盛下虛하고 胸實足輕하며 剽銳好勇하다.

太陰人の 容貌詞氣는 起居有儀하며 而修整大하고,

少陰人の 容貌詞氣는 體任自然 而簡易小巧한다 하였다.

(2) 心性에 따른 體質 분류

1) 性質才幹에 따른 구분¹⁰⁾

太陽人 性質은 長於疏通 而材幹이 能於交遇하고
少陽人 性質은 長於剛武 而材幹이 能於事務하고
太陰人 性質은 長於成就 而材幹이 能於居處하고
少陰人 性質은 長於端重 而材幹이 能於黨與한다.

2) 恒心에 따른 구분¹¹⁾

太陰人은 恒有怯心하니 怯心이 寧靜則居之安資之深而造於道也오 怯心이 益多則放心桎梏而物化之也한다. 若怯心이 至於怕心 則大病이 作而怔忡也니 怔忡者는 太陰人病之重證也다.

少陽人은 恒有懼心하니 懼心이 寧靜則居之安資之深 而造於道也오 懼心이 益多 則放心桎梏 而物化之也라 若懼心이 至於恐心 則大病이 作而健忘也니 健忘者는 少陽人病之險證也니라.

少陰人은 恒有不安定之心하니 不安定之心이 寧靜 則脾氣 卽活也오

太陽人은 恒有急迫之心하니 急迫之心이 寧靜 則肝血이 卽和也한다.

3) 性氣에 따른 구분¹²⁾

少陽之性氣는 恒欲舉而 不欲措하고

太陰之性氣 恒欲靜而 不欲動하며

少陰之性氣 恒欲處而 不欲出하고

太陽之性氣는 恒欲進而 不欲出한다.

4) 情氣에 따른 구분¹³⁾

9) 李濟馬, 上揭書, pp.137~142

10) 李濟馬, 上揭書, p.138

11) 李濟馬, 上揭書 pp.139~140

12) 李濟馬, 上揭書, p.16

13) 李濟馬, 上揭書, p.17

8)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행림출판, 1986, p. 138

太陽之情氣 恒欲爲雄而 不欲爲雌하고
 少陰之情氣 恒欲爲雌而 不欲爲雄하며
 少陽之情氣는 恒欲外勝而 不欲內守하며
 太陰之情氣는 恒欲內守而 不欲外勝한다.

5) 心欲에 따른 구분¹⁴⁾

太陽之人 雖好爲雄 亦或宜雌 若全好爲雄則 放縱之心 必過也,

少陰之人 雖好爲雌 亦或宜雄 若全好爲雌則 偷逸之心 必過也,

少陽之人 雖好外勝 亦宜內守 若全好外勝則 偏私之心 必過也,

太陰之人 雖好內守 亦宜外勝 若全好內守則 物欲之心 必過也니라.

(3) 四象體質에 따른 病證과 病理¹⁵⁾

東武 李濟馬는 獨창적인 四象醫學說을 發明했다. 그는 人體가 先天的으로 臟腑의 大小偏在를 지니고 있고 臟腑의 大小로 인해 큰 臟器는 그 機能이 더욱 實하기 쉽고, 작은 臟器는 그 機能이 더욱 虛하기 쉽기 때문에 病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각 體質의 사람들은 哀怒喜樂之氣의 升降에 의해 특수한 疾病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治法 또한 相異해진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先天的인 臟局偏在와 性情의 升降에 의하여 發生한 病證을 論함에 있어 心은 中央之太極으로 두어 臟器의 虛實을 脫皮하고 나머지 臟腑와 表裏寒熱을 結合함으로써 四象人의 表裏寒熱病證의 개념을 도입하여 陰陽升降의 緩速을 對待論理로 설명하였다.

1) 少陰人 病證論

腎大脾小한 少陰人의 病證은 腎受熱 表熱病과 胃受寒 裏寒病으로 大別된다. 이중 腎受熱 表熱病은 腎大하여 腎陰이 旺盛하므로 그의 腑인 大腸이 升陽作用을 하지 못하여 鬱滯됨으로써 發生한다. 胃受寒 裏寒病은 脾小하여 脾陽의 不足으로 인해 陰化되므로 升陽하는 氣運이 不足해짐으로써 發生하며 陰實之氣의 輕重에 의해 病證이 구분된다.

① 腎受熱 表熱病 ~ 이 表熱病證의 重要病證은

14) 李濟馬, 上揭書, p.17

15) 송일병의,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p.14 3-235

鬱狂證과 亡陽證으로 大別되며 각각 初證, 中證과 末證으로 區別된다.

鬱證	初證…太陽病 表證 因在而其人如狂者
	中證…陽明病 胃家實 不更衣者
	末證…陽明病 潮熱狂言 微喘直視者
亡陽	初證…太陽病 發熱 惡寒 汗自出者
	中證…陽明病 不惡寒 反惡熱 汗自出者
	末證…陽明病 發熱 汗多者

鬱狂初證은 太陽經 表證이 아직 있으면서 安절 不절하는 증세이고, 中證은 陽明胃家實로 大便이 不通되는 것이며, 末證은 陽明病에 潮熱이 오르고 헛소리를 하며 숨을 헐떡이고 눈을 똑바로 뜨는 증세이다. 亡陽證의 初證은 太陽病에 發熱, 惡寒, 自汗이 있는 것이고, 中證은 陽明病에 惡寒은 없고 도리어 惡熱이 있으면서 自汗이 있는 것이며, 末證은 陽明病에 發熱이 있고 땀이 많이 나는 것이다. 즉 鬱狂證은 身熱이 있되 땀이 나지 않는 것이요, 亡陽證은 身熱이 있으면서 땀이 저절로 흐르는 것이므로 鬱狂證에 비해 亡陽證이 重證이며 逆症이다. 따라서 鬱狂證·亡陽證 모두 上昇하지 못한 陽氣를 어떻게 上昇시키는가에 의하여 기본 治療方向이 定해지는데, 鬱狂證의 無汗은 陽氣 常存한데 榮衛陰陽만이 不和한 所致이니 調和榮衛 하면 되고, 亡陽證의 有汗은 陽氣不足으로 因한 津液外脫이므로 治本하기 위하여 陽氣上昇을 목표로 升陽益氣法을 구사하면 된다.

② 胃受寒 裏寒病 ~ 이 病證은 太陰證, 少陰證으로 區分된다.

太陰證 : 口中有和 無口渴 而有腹痛 自利者

少陰證 : 口中有和 有口渴 而有腹痛 自利者

이 中 太陰證의 泄瀉는 大腸의 寒氣를 胃 속의 溫氣가 逐出하려는 泄瀉이고, 少陰證의 泄瀉는 大腸의 寒氣가 胃 속의 溫氣를 逼迫하는 泄瀉로 太陰證은 順症概念이고 少陰證은 逆症개념이며 表裏俱病에 해당한다. 이때의 治療는 鬱滯된 陰實之氣를 내려주는 것을 根本으로 하여, 太陰證에 있어서는 溫氣가 寒氣를 밀어내는 것이므로 그 溫氣를 도와주면서 裏陰을 내려주는 방법 즉 溫胃而降陰法을 사용하고, 少陰病에 있어서는 이미 대세가 기울어져 深部에까지 영향을 미친 상태이므로 脾

氣를 도와주면서 降陰시키는 健脾而降陰法을 使用한다.

少陰人은 전체적으로 中心勢力이 아래에 있어 陰化되기 쉬우므로 陽暖之氣가 保命之主라는 것을 바탕으로 升降概念을 運用한다. 그 중 表病은 腎大함으로 인해 생긴 陰化된 기운을 어떻게 陽化시키느냐에 主안점을 두어 升陽益氣를 治法으로 하고 있고, 裏病은 脾小로 인하여 생긴 陰實之氣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裏陰降氣를 治法으로 하였다.

2) 少陽人 病證論

脾大腎小한 少陽人의 病證은 脾受寒表寒病과 胃受熱裏熱病으로 區分된다. 이 중 脾受寒表寒病은 少陽人이 脾大하기 때문에 脾속의 陽氣가 크므로 이것으로 因하여 脾속의 陰氣가 逼迫을 받아 下降하지 못하므로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 脾陰을 平의 상 表陰이라 한다. 胃受熱裏熱病은 淸陽이 上升하지 못하여 發病하는데, 이 上升하지 못한 裏陽은 耗陽이요 火氣이다. 이는 腎小함으로 인해 陰虛되기 쉽고, 淸陽 곧 元氣가 頭面四肢까지 순조롭게 올라가지 못하고 熱化되어 病證이 나타난다.

① 脾受寒表寒病 ~ 重要 病證은 鬱滯한 表陰의 정도에 따라 少陽傷風證가 亡陰證으로 구별한다.

(1) 少陽傷風證

少陽傷風證은 少陽人의 腎局의 陰氣가 熱邪로 下陷되고, 脾局의 陰氣가 熱邪에 의해 凝滯되어 腎局으로 下降하지 못하고 어깨와 등성마루 사이에 凝滯된 것이다. 묘사된 病證으로는 熱과 惡寒이 있고 脈이 浮緊하며 身痛하고 嘔이 나지 않으며 煩燥證이 있는데, 이 範疇에는 口苦·咽乾·目眩·耳鳴·寒熱往來·嘔逆 등의 症勢들도 包含된다. 少陽傷風證이 수일동안 낫지 않고 時日을 끌게 되면 表陰이 下降하지 못할 뿐 아니라 裏陰도 上升하지 못하여 結胸證이 발생한다.

(2) 亡陰證

少陽人이 泄瀉하는 證狀을 대표 證候로 하는데, 이는 陰氣가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지 못하고 반대로 上升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症勢이다. 身熱, 頭痛, 泄瀉의 亡陰에는 猪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을 使用하고, 身寒, 腹痛, 泄瀉의 亡陰에는 滑石苦參湯, 荊防瀉白散을 使用한다.

이때 少陽傷風證은 順症概念이고, 亡陰證은 逆症概念이며, 結胸證은 表裏가 같이 不和한 病證이다.

② 胃受熱裏熱病 - 胸膈熱證과 陰虛惡熱證으로 大別된다.

(1) 胸膈熱證 (裏熱便秘)

裏陽이 上升하지 못하고 鬱滯되어 熱化된 것으로 大便不通이 主要 證狀이다. 消渴病 中 上消와 中消, 盜汗, 背癢, 腦疽, 纏喉風, 咽喉病, 脣腫, 纏喉風, 陽毒發斑, 流注丹毒, 黃疸, 耳目口鼻, 齒牙之病은 모두 火와 熱로 因한 病證인데 大便不通의 정도에 따라 輕重으로 나뉜다. 특히 少陽人이 며칠 동안 大便을 보지 못하면 이것은 熱毒이 甚해진 것으로 裏熱便閉라하고 地黃白虎湯으로 疏通시킨다. 少陽人의 中間에 悶쳐 있는 火氣를 풀어주는 것을 淸熱瀉火라 하는데, 이는 淸陽을 上升시키는 방법으로 涼膈散火湯이 가장 많이 使用된다.

(2) 陰虛午熱

少陽人의 腎小한 특징으로 表陽이 상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表陰도 下降하지 못하여 陰虛火動이 나타나는 病證이다. 證候에는 陰氣가 虛하여 午後에 熱이 오르고 물을 찾고 등이 시리며 嘔逆이 나는데, 消渴病中の 下消, 中風, 吐血 등의 證候도 이 範疇에 속한다. 이때에는 補陰하고 火氣를 풀어주는 滋陰降火法으로 淸陽을 上升시킨다.

3) 太陰人 病証論

肝大肺小한 太陰人의 病證은 크게 胃脘受寒 表寒病과 肝受熱 裏熱病으로 나뉜다. 胃脘受寒 表寒病은 太陰人이 肺小하므로 그의 腑인 胃脘의 上升하는 힘이 不足하고 肺의 呼散之氣도 不足하여 表出하는 기운이 적으므로 생기는 病證이다. 반면에 肝受熱 裏熱病은 太陰人이 肝大하여 吸聚지기가 旺盛하므로 안으로 모으는 기운이 많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내부에 鬱滯됨으로 인해 생기는 熱證이다.

① 胃脘受寒 表寒病 ~ 外感表病에 있어서 寒邪의 侵感을 잘 받고 陰勝體이므로 胃脘에까지 寒邪가 도달하여 發病한다. 이는 크게 太陽寒厥證과 胃脘寒證으로 구분된다.

(1) 太陽寒厥證

太陽病 傷寒時에 머리가 아프고 熱이 나면서 허리와 골절이 쭉서고 惡寒이 있으나 땀은 나지 않고 기침하는 症勢를 背佳頁表病이라 한다. 이는 營血不利한 까닭이므로 麻黃發表湯으로 發汗시켜 呼散之氣를 도와주면 營血不利한 것이 해결된다. 太陽寒厥證은 원래 勞心焦思 등으로 胃脘이 더욱 衰弱해지고 表局이 더욱 虛弱해진 틈을 타서 寒邪가 侵犯하여 正邪相爭하는 形勢이니, 寒熱과 汗出이 교대로 나타나며 수일동안 반복되는 症勢로 이 病證의 관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發汗의 有無와 進退로 病의 輕重을 判斷하여 그 輕重의 程度에 따라 熊膽散이나 寒多熱少湯 등으로 發汗을 시킨다.

(ㄴ) 胃脘寒證

太陰人 특유의 呼散之氣 不足에서 오는 病證이다. 證候로는 食滯痞滿, 腰脚無力, 黃疸, 咳嗽 등이 있는데 이때에는 太陰調胃湯, 調胃升清湯 등으로 發汗 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② 肝受熱 裏熱病 ~ 이 病證은 肝燥熱證과 陰血耗竭證으로 大別된다.

(ㄱ) 肝燥熱證

太陰人이 “侈樂無厭하고 慾火外馳하며 肝熱太盛 肺燥太枯”하기 때문에 發生되는 것으로 發熱을 爲 主로 하니 陽明經病과 陽明腑病의 症候, 傷寒陽毒이나 熱性溫病을 포괄하며, 飲一溲二한 消渴病, 手指焦黑斑瘡病等도 포괄한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熱多寒少湯을 基本方으로 하여 清肺瀉肝湯, 葛根解肌湯等을 利用한다.

(ㄴ) 陰血耗竭證

太陰人에게 있어서 天稟이 弱한 경우에 肝熱肺燥의 상황이 陰血耗竭의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제와 表寒證이나 裏熱證에서 陰血의 耗竭로 바로 肝熱肺燥의 狀態가 더욱 進展된 것으로 보므로 궁극적인 목표는 陰血을 補強하여야 하는 것이다. 太陰人 虛弱人 中 寒證多者에게는 鹿茸大補湯을 裏證多者에게는 共振黑元丹을 사용한다.

太陰人의 表病證과 裏病證은 모두 燥病證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表病證의 燥는 太陰人이 肺小함으로 인해 呼散之氣가 不足해서 오는 것으로 이를 肝燥熱에 비교하여 肺燥寒이라 하고, 이때의 燥는 땀을 내어 풀어준다. 裏病證의 燥는 吸聚之

氣가 過多하여 안으로 너무 많이 쌓여 생긴 鬱熱로 인한 것으로 肝燥熱이라 하고, 이때의 燥는 주로 大便을 나가게 함으로써 燥를 풀어준다. 만일 燥가甚하면 表裏病 모두에 潤血潤燥藥을 더불어 사용하기도 한다.

4) 太陽人 病證論

肺大肝小한 太陽人의 病證은 크게 外感表病發腰脊病과 內觸裏病發小腸病으로 구분된다.

① 外感表病發腰脊病

外感表病發腰脊病은 咳逆이라 通稱되는 것으로, 太陽人은 肺의 呼散之氣가 盛하고 肝의 吸聚之氣가 不足한 上盛下虛한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肝의 부위인 腰脊이 陽性인 外邪를 받아들이기 쉬우므로 腰脊部에서 病證이 發현되는 症候이다. 上體는 完健하고 下體는 풀린 것 같아 걸을 수가 없다. 즉 다리에 腫痛, 麻痺症勢가 없으면서 下體의 發達이 그다지 弱하지도 않으니, 이를 “弱不弱, 壯不壯, 寒不寒, 熱不熱”한 상태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治療는 深愛를 경계하고 忿怒를 멀리하여 맑은 마음을 간직하고 안정을 되찾도록 노력하면서 五加皮壯脊湯을 써야한다고 하였다.

② 內觸裏病發小腸病

內觸裏病發小腸病 즉 噎膈證으로 대표되는 病證이다. 肺와 肝은 氣液을 呼吸하는 門戶로 서로 번갈아 가며 進退하면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太陽人에 있어서 肝의 腑인 小腸은 氣液의 陰涼한 氣를 吸入하는 힘이 부족한 반면 肺의 腑인 胃脘은 氣液의 陽溫한 氣를 呼散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盛하게 된다. 따라서 胃脘이 乾枯한 狀態에서 呼散之氣는 太過하나 中焦에서 吸入하는 기운이 지탱하지 못하므로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吐出하게 되어 噎膈證이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噎膈이나 反胃證은 太陽人中 重한 症勢이고, 이에 대한 치료는 화내지 말고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면서 獼猴桃植腸湯을 쓰게 하였다.

이와 같이 太陽人은 그 구조가 위로 올라가서 表出하는 기운은 많고 밑에서 받아서 備蓄하는 기운은 적으므로 이로 인해서 病證이 發生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위로 몰리는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려 거두어들여야 하므로, 小便이 잘 나가는 것이

丑1. 四象體質 病理略圖

體 質	辨 證 病 理	主 方
熱少陰人	1. 腎受熱表熱病…鬱狂 亡陽症 蓄血證 少陰人外感膂病內觸胃病 病機…腎陽困熱…蓄血證其人如狂 大腸怕寒…小腹硬滿 少陰人脾局陽氣爲寒邪所掩抑而腎局陽氣 爲邪所拒不能直升連接於脾局鬱蓄膀胱	川芎桂枝湯 補中益氣湯 八物君子湯 香附子八物湯
寒少陰人	2. 胃脘受寒裏寒病…關格 黃疸 浮腫 痞滿 水結胸	桂枝半夏生薑湯 十二味寬中湯
寒少陽人	1. 脾受寒表寒病…少陽病口苦咽乾目眩寒熱 往來 少陽人外感膀胱內觸大腸病 病機…少陽人腎局陰氣爲熱邪所陷而脾 局陰氣爲熱邪所壅不能下降連接 於腎局而凝聚膂間膠固囚滯之病也	腎氣丸 荊防地黃湯 五苓散 荊防敗毒散
熱少陽人	2. 胃受熱裏熱病…陽毒發斑 流注丹毒 黃疸 消渴(下消) 大便燥也 但脾受寒…泄瀉	涼膈散火湯 導赤散 白虎湯
寒太陰人	1.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無汗 哮喘 痢疾 病機: 勞心焦思之餘胃脘衰弱而表局虛薄不勝 寒而外被寒邪圍正邪相爭之形勢客勝主弱	調胃升清湯 太陰調胃湯 麻黃定喘湯
熱太陰人	2. 太陰人肝受熱裏熱病…大腸熱結(消渴上焦) 肝熱肺燥	熱多寒少湯 清心蓮子湯
寒太陽人	1. 太陽人內觸小腸病…噎膈反胃 外感腰脊內觸小腸 病機…太陽人意強而操弱意強則胃脘之 氣上達而呼散者 太過而越也 操弱則小腸之氣 中熱而吸聚者 不支而食也	鯽魚獼猴臍植腸湯
熱太陽人	2. 太陽人外感腰脊病…解休脚無力疼痛	五加皮壯脊湯

健康狀態의 指標가 되고, 기운이 조금이라도 위로 치우치게 되면 口中吐沫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므로 서둘러 治療해야한다고 하였다. 기운을 끌어내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내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자꾸 화를 내면 그렇지 않아도 기운이 올라가는데 더욱 올라갈 것이므로, 약을 쓰기 이전에 깊이 슬퍼하거나 성내는 것을 경계하고 화내는 것을 삼가며 기름진 음식을 피하게 해야 한다. 즉 太陽人의 治療는 어떠한 藥物에 의존하기 보다는 平素의 心性을 잘 가다듬고 飲食을 주의해

야하는데 그래도 病이 낫지 않을 때에는 藥物로 治療하는 방식으로 管理 하여야 한다.

5) 完實而無病¹⁶⁾

太陽人은 小便이 旺多 則完實而無病이오
太陰人은 汗液이 通暢 則完實而無病이오
少陽人은 大便이 善通 則完實而無病이오
少陰人은 飲食이 善化 則完實而無病이나라.

6) 重病¹⁷⁾

16) 李濟馬, 上揭書, p.140

太陽人은 噎膈 則胃脘之上焦 散豁如風하고
 太陰人은 痢病 則小腸之中焦 窒塞如霧하고
 少陽人은 大便不通 則胸膈이 必如烈火하고
 少陰人은 泄瀉不止 則臍下 必如水冷하나니
 明知其人 而又明知其證 則應用之藥은 必無可疑
 니라.

(4) 이를 모두 綜合하여 四象體質 鑑別하면¹⁸⁾

1) 顔型

太陰人 - 下顎이 厚하지 않은 便이다.

少陰人 - 體軀에 比하여 조금 긴 편이다. 卽驢
 (말)과 같은 模樣이다. 혹은 등근 경우도 있다.

少陽人 - 馬狀으로 鷄卵形이며 下顎이 厚하여
 安定感이 있다. 즉 少陰人보다는 體軀에 比하여
 덜긴 편이다.

주걱턱은 少陽人에 많은 便이다.

2) 顔色

太陰人 - 紅潮를 띄며 濁하게(검게) 보인다.

少陰人 - 大體的으로 蒼白한 便이다. 혹은 얼굴
 全體가 술에 醉한 사람같이 붉은 경우도 있다.

少陽人 - 누렇고 검은 便이다. 혹은 하얀 境遇
 도 있다.

3) 眼型

太陰人 - 重而平한 牛眼型이다.

少陰人 - 大而整한 鳥眼型(鷄卵型)으로 등글고
 濁한 편이다. 울고 난 直後에 눈물이 고여있는 듯
 한 느낌을 준다.

少陽人 - 輕한 鳥眼型(鷹眼型)으로 合理的이고
 등글면서 맑다. 혹은 눈이 작으면서 눈꼬리가 있
 는 境遇도 있다.

4.) 鼻型

太陰人 - 퉁퉁하고 얼굴 全體面積에서(= 下顎의
 模樣에 比해) 차지하는 比重이 큰 便이다. 혹은 납
 작하면서 넓은 境遇도 있다.

少陰人 - 大體的으로 코끝에 앵두를 달아놓은
 것 같다. (= 방울코). 혹은 銳利하면서 코끝이 좀
 더 튀어나와 있으면서 끝에 앵두가 달려있는 感覺

을 주는 境遇도 있다.

少陽人 - 코끝이 大體的으로 銳利하고 얼굴 全
 體面積에서 (= 下顎의 模樣에 比해) 차지하는 比
 重在 비교적 작은 便인데, 혹은 크면서 銳利한 경
 우도 있다.

5) 脣型

太陰人 - 上下脣의 模樣이 거의 비슷한 便이다.

少陰人 - 上脣은 薄하고 下脣은 厚하면서 나와
 있다. 또는 下脣이 안나오면서 全體模樣이 鷄肛門
 같이 등글다. 或 上下로 뒤집혀져 있는 경우도 있
 으며, 下齒가 上齒를 덮고 있는 경우도 있다.(=反
 對交合) 犬口型도 있고 염소 입과 같은 경우도
 있다.

少陽人 - 下顎이 厚하면서 安定感이 있고, 上脣
 이 위로 若干 치켜져 올라가 있는 便이다.(=豚口
 型) 或 上下脣이 매우 얇은 경우도 있으나 上脣은
 若干 위로 치켜져 올라가 있는 便이다. 上下脣이
 서로 벌어지면서 두툼고 특히 上脣이 若干 위로
 치켜져 올라가 있는 편이다.

6) 顴型

太陰人 - 이마가 突出된 곳이 없이 平平하고
 兩眉間은 동전 한 개를 놔둔 것 같고 前髮際下
 4/5地點부터 前髮際까지는 이마가 뒤로 넘어간다.
 혹은 兩眉間은 陷沒되면서 前髮際下 4/5地點에서
 突出된 곳이 있는데 少陽人과는 달리 가운데로 몰
 리는 感覺은 주지 않는 便이고 前髮際下 4/5地點
 부터 前髮際까지는 이마가 뒤로 넘어간다.

少陰人 - 大體的으로 中間部位가 약간 陷沒되
 어있다.

少陽人 - 大體的으로 兩眉間이 突出되어 있거
 나, 中間部位가 突出되어 있는데 가운데로 몰리는
 感覺을 주는 편이다.

7) 音聲

少陽人 - 목소리가 가는 편임

少陰人 - 목소리가 굵은 편임

8) 頭痛의 樣相

左偏頭痛 神經性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肝鬱에
 의한 경우가 많고, 右偏頭痛 氣虛에 의한 頭痛이
 다.

太陰人中 胃脘受寒者는 前頭部가 잘 아픈 便이

17) 李濟馬, 上揭書, p.140
 18) 慶熙大學校 韓醫科 大學 제42기 졸업준비위원회,
 精選 韓國의 體質醫學,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p.18~
 36

며, 肝受熱者は 後頭部가 잘 아픈 便이다.

少陰人中 腎受熱者は 後頭部가 잘 아픈 便이다. 胃受寒者は 前頭部가 잘 아픈 便이다.(內水外炭)

少陽人은 冷頭痛으로서 兩前頭部에서 頂門穴部로 잘 나타나는 便이다. 男子는 毛鬚을 건드리기만 하여도 싫다고 하며, 女子는 머릿속이 흔들린다고 한다.

9). 嘔吐時

太陰人은 原來 濕이 많으므로 胃脘部의 冷濕을 吐하니, 속이 便해지고, 嘔吐後에는 양치질만 하는 便이다.(胃脘部의 冷結) 이 때의 吐는 吉證이다.

少陰人은 원래 氣血이 不足한데 胃府의 冷濕을 吐하고 나서 不飲水하니 氣盡되어 重證으로 된다.(胃冷結)

少陽人은 胃府의 熱濕을 吐함에 便한 듯하나 더욱 熱盛하게 되므로 咽喉가 乾燥하고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 오면서 더욱 괴로워지고 多飲水한다.(熱盛)

10) 口苦症

太陰人中 肝受熱者에 多發하는 便이다.

少陰人中 胃受寒者에 多發하는 便이다.(平素에 滑便을 보다가 便秘가 되면 나타남)

少陽人中 胃受熱者에 多發하는 便이다.

11) 喘息

太陰人은 肺性 喘息으로서 多發하는 便이다.

少陰人은 心性喘息으로서 小發하는 便이다. 難治證이다. 不用 人蔘 代 白何首烏

少陽人은 氣管支性 喘息으로서 多發하는 便이다.(腎虛하여 胃熱이 盛하므로)

12) 太息

太陰人은 平素에 잘 안 하는 便이나 心虛해지면 나타난다.

少陰人은 原來 氣虛하므로 平素에 잘 하는 便이다.

少陽人은 平素에 잘 안 하는 便이나 氣管支에 障礙가 오면 나타난다.

13) 皮膚

太陰人의 筋肉은 堅實하고 表皮는 厚한 便이다. 또한 潤氣가 없으면서 거칠게 보이고 만져봐도 삼베를 만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

少陰人의 筋肉은 浮軟하고 表皮는 薄한 便이다. 또한 潤氣가 있으므로 부드럽게 보이고 만져봐도 비단결같이 부드럽다.

少陽人의 筋肉은 厚軟하고 表皮는 淺(얇은)한 편이다. 또한 윤기가 없어 거칠게 보이지만 만져 보면 부드럽게 느껴진다. 손끝의 皮膚가 벗겨지거나 갈라지는 것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主婦濕疹은 流産經歷이 많은 女子에 好發하는 便이다.

14) 飲水關係

太陰人은 平素에 잘 안 즐기는 便인데 (但 飲酒者는 多飲水한다.) 萬若 喜飲水하면 肝熱이 動하여 內熱이 發生한 것으로 肝病과 燥熱病이 發生하고 甚하면 夢泄病과 肺病이 발생한다. 瘧疾惡寒中에 多飲冷水하고 發熱中에는 汗出하여 汗液이 빠지는 데도 不飲水한다.

太陰人中 胃脘受寒者는 平素에 飲冷水하나 發病하면 多飲冷水한다. 肝受熱者는 平素에 少飲水하나, 發病하면 喜溫水한다.

少陰人은 上熱感이 많으므로 平素에 多飲水하는 便인데 만약 不飲水하면 胃가 冷해져서 大腸이 마르므로 大便이 滑 或 秘하니 浮腫 卽 腎機能障礙가 온다.(冷) 瘧疾惡寒中이나 泄瀉時나 嘔吐後에 不飲水한다. 能飲水는 一吉證也니라.

少陰人中 腎受熱者는 平素에 多飲冷水하나, 發病하면 少飲水 한다. 胃受寒者는 平素에 少飲水하나 發病하면 多飲冷水한다.

少陽人은 平素에 즐기는 便으로 胃熱이 發生하면 자다가 깨서도 찾아 程度인데 萬若 不飲冷水而 喜溫水하면 胃府가 枯結되어 胃潰瘍이나 消渴病이 發生한다.(熱) 發熱中에는 能飲冷水하나 惡寒中에는 不飲水한다. 胃熱이 甚하면 喜溫水 혹 不飲冷水하는데 消渴病患者는 飲冷水한다.

少陽人中 脾受寒者는 平素에 少飲水하나 發病하면 多飲冷水한다. 胃受熱者 平素에 多飲冷水하나 發病하면 喜溫水한다.

15) 三伏에 不飲冷水

太陰人中 肝受熱者에 燥熱病이 온 境遇에 나타날 수도 있으나 거의 없는 便이다.

少陰人中 胃極冷한 境遇에 나타난다. (冷水를 보면 흐느길 程度이다. 大便滑)

少陽人中 胃極熱(=涼膈散火湯證)의 境遇에 나타난다.

16) 口渴의 樣相

太陰人은 口渴과 渴에서 咽喉部로 말라 들어간다.(肺小)

少陰人은 口渴과 舌前部에서 咽喉部로 말라 들어간다(內水外炭). 故로 唇瘡症이 잘 發生하고 甚하면 口渴이 뒤집어진다.

少陽人은 咽喉部에서 口渴이 弱하다. 故로 口渴이 弱하다.(胃熱)

17) 口臭

太陰人은 輕證으로 口臭은 弱하고, 口苦가 甚하다.(肺虛나 肝熱)

少陰人은 太重證으로 口臭이 甚하고, 口渴은 弱하다.(胃冷)

少陽人은 太重證으로 口臭과 口渴이 甚하고 口苦는 弱하다. 舌黃胎(胃熱)

18) 汗液

太陰人은 平素에 多汗하는 便이나 少汗 或 無汗하는 境遇도 있다. 多汗則 實而無病이니라.

少陰人中 平素에 腎受熱者는 有汗하고 胃受寒者는 無汗하는 便이다. 胃冷이 甚하여 傷肺하면 多汗하는데 全身과 手足掌心に 모두 汗出한다.

少陽人은 平素에 少汗하는 便이다. 陰虛하면 脾局의 陰氣와 腎局의 陰氣가 一升一降作用을 못하여 多汗하는데 이때에는 全身에는 汗出하나 手足掌心에는 無汗한다.

19) 病癒之汗

太陰人은 汗出이 自始耳後高骨 面部髮際하여 大通於胸臆間한다.

少陰人은 人中에 先汗하고 觀部, 頸部, 胸部의 循으로 汗出한다.

少陽人은 手足掌心に 多汗한다.

20) 手足冷汗

太陰人中 肝受熱者에 多發하는 便이다.

少陰人中 腎受熱者에 多發하는 便이다.(腎陽困熱)

21) 手足無汗者

太陰人

少陰人中 肺弱者나 臟厥者는 手足無汗하여 손바

닥과 발바닥이 허영게 잘 벗겨진다.

少陽人中 脾受寒者로 手足無汗者의 重證에는 손끝이나 발뒤꿈치가 잘 갈라진다.

22) 手足汗多

太陰人은 肝熱이 甚하여 傷肺하면 發生한다.(用熱多寒少湯, 葛根解肌湯)

少陰人은 胃冷이 甚하여 傷肺하면 發生한다.(用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少陽人은 胃熱이 甚하여 傷肺하면 發生한다.(用涼膈散火湯)

23) 小便

太陰人은 三四回/日 但 燥熱病患者나 心虛者는 小便이 數해진다. (一二回/日 이나 六回/日 以上은 非正常이다.)

少陰人은 二三四回/日(腎大) 小便量은 대체적으로 많은 便이다. 但 鬱縮膀胱하게 되면 小便이 頻數해진다.(五回/日 以上은 非正常이다.)

少陽人은 四五六回/日 (腎小) (一二回/日 七回/日 以上은 非正常이다.)

少陽人中 脾受寒者로서 産後調理不良하거나 流産經歷이 많은 者는 小便數而不禁, 咳嗽時小便失禁 등이 오는데 오줌소태까지는 잘 안 오는 便이다. 胃受熱者는 膀胱이 말라 無力해지면 小便이 數해지면서 오줌소태까지도 잘 오는 便이다.

24) 大便

太陰人의 用便시간은 久한 便이며 大便狀態는 頭硬而尾微滑하다.(1回/1日) 模樣은 제일 가는 便이고 發病하면 後重이 잘 일어나는 便이다. 傷肺한 境遇나 大腸에 冷濕이 있는 境遇에는 用便時間이 더욱 오래 걸린다. 또한 胃脘受寒者일지라도 冷이 極甚하면 便秘도 올 수 있다. 만약, 少陰人便과 같으면 肝受熱裏熱病을 內包하며 太陰人便과 같으면 胃受寒表寒病을 內包한다. 대변을 참으려면 참을 수도 없고 참더라도 便秘는 오지 않는 便이다.

少陰人의 用便時間은 제일 오래 걸리는 便이고 大便狀態는 頭尾燥而體長하여 굵고 제일 긴 便이나, 少陽人 보다는 덜 굵은 便이다.(一三五七日/回) 만약, 少陽人便과 같으면 腎受熱表熱病을 內包하며 太陰人便과 같으면 胃受寒裏寒病을 內包한다.

少陽人은 用便時間이 速한 便이며 大便狀態는 頭燥尾滑하고 體大而疏通하여 제일 굵고 짧은 便이다.(1日/1回) 冷이 아래로 처지거나 心虛하면 用便時間이 길어진다. 만약, 少陰人便과 같으면 胃受熱裏熱病을 內包하며, 太陽人便과 같으면 脾受寒表寒病을 內包한다. 大便을 참으려면 못견뎌서 싸던지 便秘가 오는 便이다.

25) 大便不通時

太陰人中 肝受熱者는 項強證이 잘 오고 口苦口渴하나 少飲水하는 便이다.

少陰人은 대체적으로 큰 不便을 느끼지 못하는 便이다.

少陽人中 胃受熱者는 咽乾하여 多飲水하고 冷頭痛이 잘 나타나는 便이다.

26) 泄瀉時

太陰人 양치질만 할 정도로 不飲水하며 活動時에는 약간 氣衰하고 口渴이 若干 나타난다. 太陰人中 胃脘受寒者는 口苦, 口渴, 項強이 나타나는 便이고, 肝受熱者는 口苦 口渴 項強이 없는 便이다.

少陰人은 不飲水하므로 脫盡되면 口燥症이 나타나고 活動時에는 氣衰가甚하고 甚한 境遇에는 水液을 供給하여야 할 程度이다. 少陰人中 胃受熱者가 제일 氣運이 떨어진다.

少陽人은 少飲水하거나 多飲水하여 脫盡되는 경우는 드문 便이다. 少陽人中 脾受寒者는 活動時에 若干 氣運이 떨어지는 便이며, 胃受熱者는 活動時에 如前한데 內渴이 甚하게 나타난다.

27) 經度

太陰人의 出血期間은 四七日間程度이고 經量은 第一 많은 便인데 肝受熱者가 특히 더욱 많은 便이다. 閉經이 되고 나면 怔忡證이 易發하는 便이다.

少陰人의 出血期間은 三五日間 程度이고 經量은 보통인 便이다.

少陽人의 出血期間은 二三日間 程度이고 經量은 제일 적은 便이다

28) 經痛

太陰人은 大體的으로 腹痛(量多), 或은 腰腹痛(量少, 有塊)이 나타난다.

少陰人은 大體的으로 無痛이거나 腹痛이 나타나는 便이다. 冷이 極甚하면 腰腹痛도 나타나는 便이다.

少陽人은 大體的으로 腰痛이 나타나는 便이다. 發病하면 腰腹痛이 甚하여 鎮痛劑를 服用해야만 할 程度이다.

29) 初産時

太陰人 大體的으로 腹痛인데 或은 腰腹痛이 나타나기도 한다.

少陰人 大體的으로 無痛이거나 腹痛이 나타나는 便이다. 胃冷이 甚하면 腰腹痛도 나타날 수 있다.

少陽人 大體的으로 尾骨이 뒤틀리며 빠지는 듯한 痛症이 오는 便이다. 出産時에 脫陰이 되는 境遇가 많은 便이다.

30) 糖尿病에 걸린 경우

太陰人은 一飲二洩하니, 初期부터 體重減少가 甚하게 나타나는 便이다.

少陰人은 體重減少가 初期에는 甚하지 않은 便이나, 中證이 되고 나면 體重減少가 나타난다.

少陽人은 體重減少가 初期에는 甚하지 않은 便이나, 中證이 되기 直前에는 나타난다.

31) 足熱로 이불을 못 덮는 境遇

太陰人中 肝受熱者에 多發하는 便이다.(原因 ; 傷肺, 症狀 ; 不飲水) 用補肺湯, 熱多寒少湯.

少陰人中 肺結核患者의 境遇에 發生한다.

少陽人中 胃受熱者에 多發하는 便이다.(原因 ; 傷肺, 氣管支)

32) 발뒤꿈치가 갈라진다.

太陰人中 肝受熱者에 多發하는 便이고 발이 더워 이불을 덮지 못하는 便이다.

少陰人은 腹冷結로 內竭되면 涌泉穴에서 然谷穴까지의 부위가 허영게 말라서 벗겨지는 便이고 甚하면 갈라지기도 한다.

少陽人은 腎虛나 産後調理不良 또는 胃熱이 甚한 경우에는 발바닥이 마르고, 더욱 甚해지면 갈라지는데, 脾受寒者에 易發하는 便으로서 발이 차서 꼭 이불을 덮고 자는 便이다.

33) 其他事項

太陰人은 固執이 센 便이고 骨格이 壯大하며 발목이 굵고 허리를 펴고 곧바로 걷는 便이다.

少陰人은 목소리가 굵은 便이고 허리를 굽히고 걷는 便이며, 瘀血이 잘 생기는 便이다. 또한 平素에 잔것을 좋아하는 便인데 萬若 甘味를 좋아하게 되면 안 좋은 徵兆이다.

少陽人은 목소리가 가는 便이고, 발이 가는 便이고, 허리를 펴고 左右로 흔들면서 걷고 잠견하기를 좋아한다.

34) 治療의 難易度

太陰人의 肺病類는 速治하고 腎病類는 難治로 九死一生이며, 胃病類 또한 難治이다.

少陰人의 肺病類는 難治하고 腎病類는 久治이며, 胃病類는 速治이다.

少陽人의 肺病類는 久治하고 腎病類는 速治이며, 胃病類는 久治이다.

35) 좋은 食品

① 太陰人 - 濕性食品

맵쌀, 수수, 울무, 콩, 감자, 마, 무우, 배추, 옥수수, 밤, 설탕, 도라지, 蓮根, 은행, 보리, 쇠고기, 사슴, 우유, 호박, 칩, 칩순, 수박, 배, 살구, 鹿茸(상추를 먹으면 졸리다고 한다.)

② 少陰人 - 熱性食品

참쌀, 차조, 찰수수, 찰옥수수, 대추, 찰떡, 닭고기, 개고기, 흑염소, 노루, 꿩, 뱀, 자라, 소금, 마늘, 후추, 고추, 土卵, 生薑, 고구마, 꿀, 오렌지, 복숭아, 인삼, 땅콩, 파, 鷄卵.(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臍石症에 걸리기 쉽다.)

③ 少陽人 - 寒性食品

조, 팥, 녹두, 돼지고기, 참기름, 상추, 새우젓, 굴, 치자, 가지, 오이, 시금치, 더덕, 숙주나물, 조개類(但 大蛤조개는 除外), 아몬드, 딸기, 참외, 토마토, 파인애플, 바나나, 키위, 골뱅이, 紅茶, 유자차.

④ 太陽人 - 冷性食品

사과, 머루, 葡萄, 앵두, 감, 대합조개, 松花, 메밀

36) 體質鑑別時 注意點

人物形容을 仔細商量하여 再三推移하되 如有迷惑 則參互病證하여 明見無疑然後에 可以用藥이오 最不可輕忽而一貼藥을 誤投重病險證이면 一貼藥이 必殺人이니라.

3. 기타 體質類型別 鑑別論

(1) 體診

1) 尺度法¹⁹⁾

尺度法이란 體質마다 人體의 發達한 部位나 虛弱한 部位가 차이가 있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簡便하고 實證的으로 體質을 진단하는 方法이다.

보통 자신이 어느 體質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경우는 드물고, 네 가지 體質가운데 어느어느 두 가지 體質은 아닌 것이 確實한데 나머지 두 가지 體質가운데 어느 것인지 자신이 안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이 방법은 특히 효과가 있다.

다만 少陽人과 太陽人 사이의 구별에는 이 방법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아직 이 尺度法은 하나의 假說이고 研究가 進行되는 상태에 있다.

그 방법은 四象人의 몸통의 體刑은 각각 아래와 같이 基準線을 定하여 측정한다.

第 1 線(어깨部位)- 左右 양쪽 腋窩部에 있는 大胸筋 外側上端을 연결한 水平길이

第 2 線(가슴部位)-兩 젖꼭지(乳頭)를 지나 兩 겨드랑이에 이르는 水平길이

第 3 線(胃部位)-左右 不容穴(명치左右 2寸 부근에 있는 穴)을 지나 양쪽 겨드랑이에 이르는 水平길이

第 4 線(배꼽部位)-左右 天樞穴을 지나 양쪽 옆구리에 이르는 水平길이

第 5 線(腸骨部位)-左右 胸骨양끝을 잇는 水平길이

이 기준선들은 각각 어깨부위선 上焦 基準線이 되고, 가슴부위선은 中上焦 기준선이 되며, 胃부위선은 陰陽의 분지선이 되고, 배꼽부위선은 中下焦 基準선, 장골부위선은 下焦 기준선이 된다.

陽人은 胸廓部位가 크고 陰人은 骨盤部位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이 特徵이 잘 드러나는 것은 少陽과 少陰에서이다. 한편 갈비뼈가 脊椎에 붙은 角度를 가지고도 體質 判斷에 참고할 수 있는데, 갈비뼈와 척추가 이루는 각이 鈍角이면 太陰人 혹

19) 許萬會, 四象人의 形態學的 圖式化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1

은 少陽人이고 銳角이면 少陰人으로 본다.

2) 四象頭部 觸診法²⁰⁾

太陰人은 頭形이 圓形四角形이다. 顔面도 圓形四角形이다. 그러나 顔面이 長圓形으로 생긴 사람도 있다. 頭形과 顔面이 둥글둥글하게 생기었으며 四象人 中에서 가장 尖角이 없는 사람이다.

太陰人은 頭部の 筋肉皮質이 厚軟두텁기 때문에 두 손으로 만져보면 觸感的으로 부드러운 感을 느낀다. 四象人 中에서 가장 부드럽고 물렁물렁하다. 少陰人 中에서도 혹간 머리끝이 둥글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으나 극히 드물다. 太陰人은 後頭部尖骨이 短圓하고 平平하다. 太陰人은 얼굴이마가 넓은 편이고 눈썹 양쪽 사이가 넓은 사람이 많다.

少陰人은 대체로 頭部와 顔面이 圓三角形이지만 面과 顔面이 납작하게 생긴 사람도 있다. 頭部の 筋肉皮質이 薄強얇게 생기었기 때문에 두 손으로 만져보면 실제로 단단하다. 少陰人은 後頭部 中央部の 尖骨角이 銳利하게 생겼다. 後頭와 앞이마가 앞뒤로 나온 사람도 있다. 少陰人은 얼굴이 길죽하게 생긴 사람이 많다. 四象人 中에서 가장 길게 생긴 사람이 많다. 少陰人은 頭形이 扁頭形 한 쪽으로 기울거나 이즈러졌거나 여러모로 납작하게 생긴 사람이 많다. 少陰人은 後頭部の 尖骨 骨端이 뾰족하고 날카롭다. 그렇게 때문에 觸感的으로 診察者의 손가락에서 刺感(찌르는 感覺)을 느낀다. 위와 같은 形狀이 나타나면 男女를 不問하고 老人, 長年, 青年, 少年, 小兒, 幼兒, 幼兒, 初生兒까지 모두 100%少陰人으로 단정한다. 少陰人은 後頭部의 尖骨이 四象人 中에서 比較적 細長 尖利한 편이다.

少陽人은 頭形이 圓突出形이다. 前頭 後頭가 突出한 사람이 많다. 頭部와 顔面이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 길죽하게 생긴 사람도 있다. 頭部の 筋肉皮質은 건강한 편이다. 頭部를 두 손으로 만져보면 強度를 느낀다. 後頭部의 尖骨은 微圓하다 或間 尖利한 사람도 있다.

太陽人은 頭形이 體身에 比하여 圓大形이다. 頭

部の 筋肉皮質이 乾強하여 두 손으로 만져보면 強度를 느낀다. 後頭部의 尖骨은 微圓하며 太陽人의 顔面은 圓, 長한 편이다.

此 四象頭部觸診法도 太陰人의 頭部觸診으로부터 시작하여 少陰人을 比較하고 少陰人으로 少陽人을 比較하고 少陽人으로 太陽人을 比較하여 四象人을 모두 比較하여서 斷定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藥診²¹⁾

1) 권영식氏의 方法

少陰人에게는 丁香, 太陰人에게는 龍腦, 少陽人에게는 薄荷를 少量(3-5분) 投與하여 이를 服用한 다음 自覺證의 變化가 궁정적으로 나타나면 그 體質로 보는 方法이다.

丁香末 一分 含下而少安者는 少陰人

薄荷腦 一分 含下而少安者는 少陽人

龍腦末 一分 含下而少安者는 太陰人

2) 김문성氏의 方法

淸肺瀉肝湯을 投與한 後 大便이 順通하면서 病勢가 好轉되면 太陰人, 下腹部 불쾌감이나 통증이 따르면서 大便이 泄利하는 경우는 少陰人, 便은 다소 물러지는 경향이 있으나 惡心, 眩暈, 胸悶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少陽人으로 본다.

3) 淸心蓮子湯 服用 後

太陰人 中 胃脘受寒者는 消化不良 大便滑等이 나타날 수 있으며 肝受熱者는 가슴이 시원하다

少陰人은 眩暈과 消化不良이 나타나고 無氣力해 진다. 少陽人은 頭痛과 胸燥症이 나타나고 甚하면 怔忡症이 온다.

4) 補肺湯 服用後

太陰人 中 胃脘受寒者 便하며, 肝受熱者 心煩症과 不眠症이 나타난다. 少陰人은 嘔逆症이 나타나고 大便을 자주 보게 되고, 혹은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으며 無氣力해 질 수도 있다. 少陽人은 眩暈, 陽氣無力, 泄瀉, 脫肉 등이 나타나고 甚하면 小便數而不禁, 胸煩, 頭痛, 不眠等이 나타날 수도 있다.

20) 朴奭彦, 東醫四象大典, 서울, 醫道文化社, 1977, pp.52~84

21) 慶熙大學校 韓醫科 大學 42기 졸업준비위원회, 上 揭書, pp.45~49

5) 麻黃發表湯 服用後

太陰人중 胃脘受寒者는 便하며 肝受熱者는 胸煩不眠이 나타나며, 少陰人은 脫津이 되어 無氣力이 甚하게 나타난다. 少陽人은 胸煩燥, 小便數, 頭痛이 나타난다.

6) 寬中湯 服用後

太陰人은 醉하면서 頭痛이 나타나고 심하면 드러누울 수 있으며 少陰人은 便하고, 少陽人은 腹痛과 속쓰림이 나타나고 심하면 卒倒할 수도 있다.

7) 獨活地黃湯 服用後

太陰人은 嘔逆症이 오면서 醉하는 듯이 머리가 暈하고 四肢가 나른하고 怔忡症이 오면서 甚하면 드러눕는다. 속쓰림도 올 수 있으며 트림이 나고 속이 꾸르륵거린다. 少陰人은 頭痛이 오면서 腹痛과 속쓰림이 오면서 飽滿感이 나타난다. 或은 顔面下顎部에 熱이 난다. 咽乾症도 올 수 있으며 冷涎도 發生할 수 있다. 또한 하품을 여러 차례 한다. 少陽人中 脾受寒者는 便하여 지고, 胃熱甚者는 消化不良과 咽乾症이 올 수도 있다. 涼膈散火湯의 경우에는 속쓰림도 있다.

8) 荊防瀉白散 服用後

太陰人은 어지럽다고 하며, 少陰人은 冷性 腹痛이 온다. 少陽人중 脾受寒者는 속이 거북하면서 가슴이 허전하고 頭痛, 泄瀉가 올 수 있다.

9) 커피 服用後

太陰人중 胃脘受寒者는 잠을 잘 자는 편이고 肝受熱者는 좋지 않으며, 少陰人은 口燥症과 胸燥症이 나타나서 잠을 못 자고 속이 훑는다고 한다. 少陽人은 心悸 怔忡症이 나타나서 잠을 못 자고 속이 쓰릴 수도 있다.

(3) 鍼診

韓醫學의 주된 治療手段인 鍼治療에 대한言及이 全篇을 通하여 거의 없었던 까닭에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한 後學들이 나오게 되어 대표적인 體質에 따른 鍼治療 理論으로 이병행氏의 太極針法과 권도원氏의 體質鍼法이 提示되었다. 太極 鍼法은 手少陰 心經에서 主治穴을 取하고 大小關係에 있는 臟器를 念頭에 두고서 官氣를 이용하여 다스리고 아울러 各 해당 經絡上의 原穴을

竝行治療하는 方法이며 體質鍼法은 壽世保元의 病證區分을 經絡과 연관시켜 治療方法을 難經의 母子官使論에 立脚하여 摸索한 治療方法이다²²⁾.

1) 太極鍼法²³⁾

太陽人은 肺大하므로 肺屬金하니 金性體質이 되며, 太陰人은 肝大하므로 肝屬木하니 木性體質이 되며, 少陽人은 脾大하므로 脾屬火하니 火性體質이 되며, 少陰人은 腎大하므로 腎屬水하니 水性體質이 된다.

診斷法을 살펴보면 우선 첫째로 尺度法을 사용하는데 體質鑑別의 第1法으로 患者를 仰臥屈足하고 布尺으로 乳房上과 下及 第11肋骨端下와 腸骨棘上의 周圍를 測量한 後 아래의 四象人의 體質病態에 依하여 四象人의 體質을 鑑別한다.

臟器의 部位로 보아서 乳房上은 肺部位에 해당하며, 乳房下는 肝部位에 해당하고, 第11肋骨端下는 脾部位에 해당하며, 腸骨棘上은 腎部位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四象人의 體質形態를 구별하게 된다. 太陽人은 乳房上의 둘레가 乳房下의 둘레보다 크며, 太陰人은 乳房下의 둘레가 乳房上의 둘레보다 크며, 少陽人은 第11肋骨端下의 둘레가 腸骨棘上의 둘레보다 크고 少陰人은 腸骨極上의 둘레가 第11肋骨端下의 둘레 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은 正確性이 稀薄하므로 輪廓만 定하고 자세한 鑑別은 아래의 第2의 方法으로서 四象人의 體質을 判定한다.

體質鑑別의 第2法은 太極鍼法으로 太陽人은 少府火穴을 補하고 太陰人은 靈道金穴補하며, 少陽人은 少海水穴을 補하며 少陰人은 神門土穴을 補하여 각기 반응을 살펴본다.

太陽人(肺大; 金性體質): 補心經之 火穴(火克金)→(+)
少府
少陽人(脾大; 火性體質): 補心經之 水穴(水克火)→(+)
少海
太陰人(肝大; 木性體質): 補心經之 金穴(金克木)→(+)
靈道
少陰人(腎大; 水性體質): 補心經之 土穴(土克水)→(+)
神門
心=中央之土

體質 鑑別로써 病은 太半以上이 治療되나 完治를 期하기 위하여 다음의 治療方法을 活用한다.

22) 金己培, 太極鍼法, 서울, 第七次鍼灸學術大會論文抄錄, 大韓韓醫學會, 鍼灸分科學會, 1983. pp.24~36

23) 李秉幸, 鍼道遠流重曆,

圓補方瀉等 여러 補瀉手技法을 활용하여 太陽人은 肺大肝小하므로 瀉肺經之原穴(太淵)하고 補肝經之原穴(太衝)하며, 太陰人은 肝大肺小하므로 瀉肝經之原穴(太衝)하며 補肺經之原穴(太淵)하며 少陽人은 脾大腎小하므로 瀉脾經之原穴(太白)하고 補腎經之原穴(太谿)하며, 少陰人은 腎大脾小하므로 瀉腎經之原穴(合谷-腎無瀉法 大腸經 原穴로 代替)하고 補脾經之原穴(太白)한다.

太極鍼法은 特徵의으로 세 가지 입장을 원칙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첫째, 主治穴을 手少陰心經의 五輸穴에서 取한다.

둘째, 實한 臟器에 대한 官氣를 利用하여 다스린다.

셋째, 大小關係에 있는 臟氣의 該當經絡上의 原穴을 取한다.

2) 八體質鍼을 응용한 方法²⁴⁾

八體質鍼은 舍岩鍼法의 處方을 體質에 따른 臟腑의 盛衰와 관련지어 運用하는데서 시작하여 最小化하는 方法으로 改善되었다. 흔히 舍岩鍼法은 特정한 正格이나 勝格을 繼續的으로 施術하였을 때 이 患者가 처음에는 效果를 보다가 反復 施術하면 無效하거나, 副作用이 나는 경우가 종종있다. 권도원은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여덟 체질에 따른 질환 分類에 따라 각기 9개씩 총 72개의 기본 處方을 발표하였다. 이 들 9種의 處方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處方이 바로 각 체질의 基本方이다. 이 基本方은 8體質에 각 體質마다 4穴씩을 취하는데 體質만 맞으면 반복하여 자침해도 부작용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體質鑑別에 응용하기도 한다. 이때 金陽人, 木陽人, 土陽人, 水陽人 등의 陽體質은 左病이 많고 取穴은 右側에 하며, 金陰人, 木陰人, 土陰人, 水陰人 등 陰體質은 右病이 많고 取穴은 左側에서 한다.

이 針法은 留針하지 않으며 單刺法으로 4~5회 반복 施行하되 반드시 刺鍼순서를 지켜야 效果의 이다. 또한 刺鍼의 깊이는 經穴은 體表部를 흐른

다는 관점에서 5mm이내로 충분하고 補瀉는 迎隨補瀉만이 效果가 있다고 한다.

金象人(太陽人)

HESPERA (I型: 腑質); 大腸勝格 施針而 病勢少安

HESPERO (II型: 臟質); 肝正格 施針而 病勢少安

土象人(少陽人)

SATURNA (I型: 腑質); 胃勝格 施針而 病勢少安

SATURNO (II型: 臟質); 腎正格 施針而 病勢少安

木象人(太陰人)

JUPITA (I型: 腑質); 肝勝格 施針而 病勢少安

JUPITO (II型: 臟質); 大腸正格 施針而 病勢少安

水象人(少陰人)

MECURIA (I型: 腑質); 腎勝格 施針而 病勢少安

MECURIO (II型: 臟質); 胃正格 施針而 病勢少安

◎ 基本方 (陽體施右 陰體施左) · 腑系炎症副方 (4:2) 上焦C方 中焦M方 下焦P方

金陽: 肝·正 — 經渠 中封 瀉 - 陰谷 曲泉 補

脾·勝 — 經渠 商丘 瀉 - 陰谷 陰陵泉 補

金陰: 肺·勝 — 陰谷 尺澤 瀉 - 大敦 少商 補,

心·正 — 陰谷 少海 瀉 - 大敦 少衝 補

土陽: 腎·正 — 太白 太谿 瀉 - 經渠 復溜 補,

心·勝 — 太白 神門 瀉 - 經渠 靈道 補

土陰: 脾·勝 — 經渠 商丘 瀉 - 陰谷 陰陵泉 補,

肝·正 — 經渠 中封 瀉 - 陰谷 曲泉 補

木陽: 肝·勝 — 經渠 中封 補 - 陰谷 曲泉 瀉,

脾·正 — 經渠 商丘 補 - 陰谷 陰陵泉 瀉

木陰: 肺·正 — 陰谷 尺澤 補 - 大敦 少商 瀉,

心·勝 — 陰谷 少海 補 - 大敦 少衝 瀉

水陽: 腎·勝 — 太白 太谿 補 - 經渠 復溜 瀉,

心·正 — 太白 神門 補 - 經渠 靈道 瀉

水陰: 脾·正 — 經渠 商丘 補 - 陰谷 陰陵泉 瀉

肝·勝 — 經渠 中封 補 - 陰谷 曲泉 瀉

(4) 脈診

脈診은 韓醫學 治療에 있어서 除外될 수 없는 중요한 診斷方法이므로 參考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東醫壽世保元上에서는 脈法을 病證을 알기 위한 하나의 方法으로 27脈 中 기본 脈인 浮沈遲數 정도만 알면 된다고 하여 辨證의 한 方面으로 한정시켰다. 실제로 脈에 대해서 <東醫壽世保元

24) 權度源, 體質鍼治療處方에 關한 研究, 서울, 東西醫學研究 一世紀 기념논문집, 東西醫學研究所 pp.148~160

》上 확인할 수 있는 개괄적인 體質別 特徵으로는 太陰人은 脈이 長而緊하고, 少陰人은 緩而弱하며, 少陽人은 浮數하고 혹 微弱한 경우도 있다²⁵⁾고 하였으며 이를 體質辨證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思慮된다. 이를 바탕으로 후세 醫家들이 太少陰陽人의 脈과 각 病證에 해당되는 脈을 광범위하게 연구하여 權英植, 權度沅 등이 제시한 방법이 있다.

1) 切診²⁶⁾(權英植氏 방법)

脈搏이 1分間 60內外者를 太陰人이라하고 脈搏이 1分間 70內外者를 少陰人이라 하며, 脈搏이 1分間 80內外者를 少陽人이라 한다. 右平常無事時를 표준한 것이며 有飲食運動, 有病時에는 표준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診察하는 사람은 主意를 기울여야 한다.

2) 脈診을 중심으로한 8體質 特性 및 鑑別法²⁷⁾(權度沅설)

金陽體質(Pulmotonia)

뒷머리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나왔다.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모방을 싫어하고 창의적인 것을 좋아한다. 육식을 하면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변하여 편할 날이 없다. 아토피성 피부 질환은 이 체질이 육식을 많이 했을 때 생기는 특유병이다. 급니가 이 체질에서는 독으로 변한다. 인공섬유를 입으면 유난히 전기가 일어난다. 모든 약이 효과가 없고 되려 해가 된다. 왼쪽에 병이 많다. 脈象은 右脈은 2指에서 左脈은 3指에서 느껴지며 右脈이 약간 강한 수가 많다.

金陰體質(Colonotonia)

화를 잘 내고 크게 화를 내면 오른쪽이 무력해진다. 육식을 많이 하면 파킨슨병 같은 회귀병에 걸리고 대변이 항상 가늘고 불만스럽다. 모든 약이 효과가 없고 일광욕과 사우나탕도 좋지 않고 오히려 수영은 좋은 운동이 될수 있다. 脈象은 右脈은 1指에서 左脈은 3指에서 느껴지며 左脈이 약간 강하게 느껴진다.

土陽體質(Pancreotonia)

성질이 급한 것이 특징이다. 보는 것을 먼저 말로 토해버린 다음에 생각한다.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을 싫어하고 움직여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며 일이 없으면 만든다. 주선력이 강하나 뒷 처리가 흐리다. 소화력이 강한 식도락가이기도 하다. 시각이 발달하여 화가가 많다. 독신주의자 거의가 이 체질이다. 머리가 일찍 희어지는 사람이 많다. 혈압이 낮은 편이나 조금만 높아도 괴롭다. 왼쪽 병이 많고 백남은 거의 이 체질의 독점병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右脈은 2指에서 左脈은 1指에서 느껴지며 左脈이 강하다.

土陰體質(Gastrotonia)

몇 십만 중에 하나가 있는 드문 체질로 만났다가 쉽지 않다. 페니실린 쇼크를 받는 체질이 이 체질로 생각된다. 비교적 잔병이 없고 병원에 가기를 싫어한다. 오른쪽이 약하다. 脈象은 右脈은 2指에서 左脈은 1,3指에서 느껴지며 左脈이 아주 약하다.

木陽體質(Hepatotonia)

풍채가 좋고 체구가 큰 사람이 많다. 눈사람처럼 어깨가 좁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굽어져서 허리가 가장 크다. 건강한 사람은 항상 맘이 귀찮도록 많으며 몸이 피로울 때 맘을 흘리면 몸이 가벼워진다. 혈압이 높아야 건강하고 의욕도 왕성하다. 평소 말이 적고 숨이 짧아 노래가 잘 안 되는 음치가 많다. 말을 많이 하는 때 가장 피곤하다. 왼쪽 발이 잘 빠고, 왼쪽으로 오는 병이 많다. 채소와 생선을 많이 먹거나 육식을 적게 하면 이유했이 피곤하고 눈이 아프며 발이 답답하다. 육식과 더운 목욕을 즐기면 살이 희고 채식과 생선을 즐기고 냉수욕을 자주 하면 색이 어둡고 검어진다. 脈象은 반드시 仰臥位로 취하되 右脈은 2指에서 뛰되 1指쪽으로 약간 느껴지며 左脈도 동일하게 느껴지고 左脈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진다.

木陰體質(Cholecystotonia)

대변이 잦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과 크게 관계는 없다. 몸이 허약하여지면 항상 배꼽 주위가 불편하고 몸이 냉하며 다리가 무겁고 잠을 잘 못잔다. 감정이 약하여 조금만 섭섭한 말

25)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辨證論, “太陰人 脈長而緊…少陰人 脈緩而弱…少陽人 浮數或 微弱”

26) 權英植, 四象方藥合編, 서울, 행림서원, 1973, pp. 5~30

27) 權度沅, 上揭書, pp.148~160

을 들어도 자극을 심하게 받는다. 성질은 급한 편이며 독하지 못하다. 오른쪽이 약하다. 채식과 생선을 즐기면 아랫배가 편할 날이 없다. 脈象은 左右脈이 모두 2指에서 뛰되 3指쪽으로 약간 느껴지며 右脈이 강하다.

水陽體質(Renotonia)

便秘가 특징이다. 보통은 2일에 한 번 통변하나 3일, 5일, 7일 만에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크게 고통스럽지 않다. 건강하면 땀이 없고 약하면 땀이 난다. 봄부터 여름에 약하고 가을에서 겨울이 건강하다. 일사병으로 잘 넘어지는 아이가 이 체질이다. 어깨가 넓고 허리가 가늘며 엉덩이가 나와 몸매가 곱다. 성품이 세밀하고 조직적이며 의심이 많아 남의 말을 쉽게 믿지 않는다. 냉수마찰과 수영이 좋다. 운동신경이 발달하여 무슨 운동이든지 잘한다. 왼쪽에 고장이 많다. 脈象은 右脈은 3指에서 뛰되 3指를 약간 넘어가 4指쪽으로 느껴지며, 左脈은 3指에서 뚫다.

水陰體質(Vesicotonia)

胃無力과 胃下垂는 이 체질의 독점병이다. 음식은 놀랄 정도로 적게 먹어야 건강하고 보통양으로 먹는 것은 過食이 된다. 무슨 病이든지 胃 不便이 소식을 알린다. 便이 항상 무르고 泄瀉를 하면 힘이 빠진다. 모든 病이 오른쪽에서 시작된다. 보리와 돼지고기는 이 體質의 毒이다. 脈象은 右脈은 3指에서 뛰며 2指쪽으로 약간 넘어가며, 左脈은 3指에서 뛰며 右脈이 강하다.

(5) 體質藥物을 이용한 O-Ring Test 에 의한 體質鑑別

O-Ring Test²⁸⁾에 의한 體質 診斷法이란 바로 오무라 요시아키 博士의 바이디지탈 오링테스트를 體質 診斷에 이용한 것으로 손가락으로 만든 오링이 飲食物이나 韓藥材가 이 사람에게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이를 體質과 연관시킨 것이다.

1) 이명복²⁹⁾식 O-Ring Test

가장 흔히 쓰이는 診斷法은 이명복씨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무, 감자, 오이, 당근의 네가지 채소

를 이용한다. 오이를 쥐고 오링이 약해지면 소음인, 무를 쥐고 오링이 약해지면 태양인, 당근을 쥐고 오링이 약해지면 태음인, 감자를 쥐고 오링이 약해지면 少陽人으로 판정한다. 또 八體質의 診斷에 있어서도 각 陽人들은 패스포드를 쥐었을 때 握力이 強化되며 각 陰人들은 브리아이피를 쥐었을 때 握力이 強化되므로 區分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노성호³⁰⁾식 O-Ring Test

오링 테스트의 재료로 쓰이는 野菜대신 四象體質에 맞는 方劑나 單味韓藥을 이용하여 오링 테스트를 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推論하에 여러 가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檢査方法은 臨床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四象方劑 中에 少陰人의 八物君子湯, 少陽人의 荊防地黃湯, 太陰人의 調胃升清湯과 熱多寒少湯을 煎湯한 液을 파우치에 넣은 상태에서 그리고 單味藥物은 人蔘, 附子, 熟地黃, 龍眼肉, 鹿茸과 葛根을 작은 비닐봉지에 적당량을 넣어서 검사를 하였다. 測定하는 方法은 먼저 患者의 몸에 있는 金屬類(시계, 반지, 목걸이, 귀걸이, 동전, 열쇠등)와 藥物을 제거한다. 그 다음 의자에 앉게 한 후 양손을 자기 몸에서 20cm이상 떨어지게 하고 환자의 얼굴은 정면을 바라보게 한다. 다음에 환자의 왼손이나 오른손의 엄지와 식지를 붙여서 둥글게 O-Ring을 만들게 하며 검사자도 양손을 가지고 O-Ring을 만든 후에 환자의 O-Ring을 만든 두 손가락에 최대한으로 힘을 가하게 한 후 일직선으로 잡아당긴다. 이때 주의할 점은 환자의 O-Ring이 벌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힘을 빼지 말고 2~3초 정도 같은 힘을 주고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절대치를 측정한 후에 약물을 무작위로 검사자의 O-Ring을 만들지 않은 다른 손에 올려 놓고 그 중에 몇 번째 약물이 손가락에 힘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지를 측정하여본다. 만약 환자의 손가락의 힘이 세면 검사자는 2지와 3지를 합하여

28) 大村惠昭, 圖說 바이디지탈 오-링 테스트의 實習. 日本, 醫道の 日本社. 1986

29) 송일병외. 上揭書 pp.137~138

30) 盧聖鎬, 體質藥物을 이용한 오-링 테스트에 의한 體質鑑別에 대한 考察

서 O-Ring을 만들어서 검사를 행한다. 반대로 환자의 손가락의 힘이 약하면 검사자는 엄지와 3지 혹은 4지로 O-Ring을 만들어서 검사를 한다. 그리고 손가락에 힘을 줄 수 없는 환자(노약자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등)를 측정할 때는 제3자를 통한 방법을 사용한다.

各各의 體質에 따라서 설정한 方劑와 單味藥物이 一致하는 경우로 즉 少陰人에게 있어서는 八物 君子湯과 人蔘 附子에 O-Ring의 힘이 세계 나타나고, 少陽人에게는 荊防地黃湯과 熟地黃에, 太陰人에 있어서는 調胃升清湯과 熱多寒少湯 그리고 龍眼肉 鹿茸 葛根에 대해서 강한 반응이 나타났다. 太陰人에게 있어서 男女 공히 熱多寒少湯에 대한 반응이 調胃升清湯의 반응보다 세계 나타난 경우에는 葛根에 대한 반응이 龍眼肉에 대한 반응보다도 세계 나타났고, 調胃升清湯에 대한 반응이 熱多寒少湯에 대한 반응보다 세계 나타난 경우에는 葛根보다도 龍眼肉에 더 강한 반응을 보였다.

3) 鄭元朝³¹⁾씨에 의해 제안된 O-Ring Test

太陽人 藥材 五加皮 100g (太陰人 감별용으로 쓰임)
太陰人 藥材 鹿茸 100g (太陽人 감별용으로 쓰임)
少陽人 藥材 熟地黃 100g (少陰人 감별용으로 쓰임)
少陰人 藥材 人蔘 100g (少陽人 감별용으로 쓰임)

上記 藥物들을 손에 쥐기 쉽도록 각기 적당한 크기의 비닐 팩에 넣어두어 위의 방법을 활용하여 감별한다.

(6) 赤外線 體熱 撮影診斷器를 이용한 體質分類³²⁾

四象醫學說에 의하여 人體는 氣의 升降에 따라 肺脾肝腎 四臟의 臟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기 上焦 中上焦 中下焦 下焦라 命名된다. 上焦는 哀性이 遠散하고 水穀溫氣가 上升하여 형성되는데, 肺 胃脘 耳 舌 頭腦 皮毛 등이 所屬되며, 中上焦는 水穀의 熱氣가 停蓄하고 怒性이 宏抱하여 形成되는데 脾 胃 目 背脊 兩乳 筋 등이 소속되고 中下焦는 喜性이 擴張하고 水穀涼氣가 平淡하여 形

成되는데 肝 小腸 臍 鼻 肉 등이 소속되며, 下焦는 水穀의 寒氣가 下降하고 樂性이 深確하여 形成되는데 腎 大腸 口 骨 膀胱 등이 소속된다. 따라서 四象醫學에서는 寒熱氣의 升降作用이 體質의 形成과 密接한 關聯을 맺고 있으므로 이를 응용하여 四臟局의 先天的 盛壯과 孤弱을 檢證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가정을 이용하여 체질을 분류하고 병증을 진단하는 赤外線 體熱撮影방법이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방법은 被檢者가 24~25℃를 유지하는 診療待機室에서 20分 정도 休息한 뒤 다시 撮影室에서 計測을 하면서 22℃±0.5℃를 유지하는 撮影室 溫度에서 15分 정도 適應하도록 한 후 실시한다. 이때 일반적인 撮影原則에 따라 食事は 朝飯만을 正常的으로 하도록 하고, 沐浴이나 物理治療 化粧 등은 금지시키며, 藥物도 전날 저녁까지만 服用하도록 한다. 撮影時에는 까운을 벗고 상체를 완전히 노출시켜 身體 前面에서는 머리에서부터 曲骨上緣까지 그리고 後面에서는 역시 머리부터 尾骨部位까지 露出되도록 하고 兩 손은 下垂시켜 팔목까지 촬영한다.

撮影室의 溫濕度는 에어컨으로 조절하여 거의 60%와 22℃를 유지하도록 한다.

體熱映像에서 溫度를 測定한 部位는 다음과 같다.

가. 四象醫學의 上焦概念으로 兩 承泣穴의 延長線을 밑변으로 하고 承泣穴에서 眉毛上緣까지의 延長線을 옆변으로 하는 직사각형 부위를 택한다.

나. 中上焦 개념으로 臍中穴에서 華蓋穴까지의 거리를 일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어 任脈線 위에 놓고 該當區域을 測定한다.

다. 中下焦 개념으로 下腕과 中腕을 連結하는 線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어 任脈線 위에 놓고 該當區域을 측정한다.

라. 四象醫學의 下焦概念으로 關元을 중심으로 上下方과 兩側方 각 一寸씩을 邊으로 하는 正四角形을 만들어 측정한다.

마. 病證을 診斷하는데 있어서는 특히 높거나 낮은 점 또는 區域을 측정하였으며 區域溫度는 모든 경우에 平均値를 채택한다.

31) 鄭元朝, 四象體質鑑別에 있어서 韓藥을 이용한 오링테스트 결과보고,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第14卷 第2號

32) 池圭鎔外 3人: 赤外線 體熱 撮影診斷器를 이용한 體質分類와 病證診斷에 관한 臨床의 研究

이 方法은 사람의 體幹을 上焦, 中上焦, 中下焦, 下焦로 分類한데 근거한 測定方法으로 전체적을 少陰人에게서 溫度分布가 가장 낮았으나, 太陰人과 少陽人의 차이는 그 意義를 인정하기 어렵다.

(7) 血液型과 體質의 상관성³³⁾

항간에서 혈액형을 가지고 체질을 논한 경우가 과거에 적지 않았으나, 그러한 방법은 전혀 무근거한 것임이 실험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으며, 혈액형과 체질의 상관성은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다.

(8) 類型體質鑑別의 免疫血液學적 研究³⁴⁾

類型體質鑑別의 객관적인 분류와 體系化를 위해 착안된 방법으로 體質의 特性을 결정지어주는 因子를 文獻의으로 연구한 결과 體質의 특성이 1)

(9) 中國에서 體質類型分類

1) 體質病理學分型 및 臨床特徵¹⁾

자율신경계 2)내분비계 3)혈액군 물질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되었다. 이들 중 특히 혈액군 물질은 보다 용이하게 검사 할수 있음으로 임상에 응용하기 에 편리한 점이 있다고 여겨져 우선적으로 혈액군 물질중에서 적혈구와 타액의 ABH항원 ABH물질을 검사하고, 이 혈액군 물질의 존재와 밀접한 關係가 있는 Lewis 혈액형을 함께 관찰하였다. 그 結果 四象體質과 Lewis 혈액형의 상호관계는 太陽人群에 Le(a-b-)se型이 65.0%, 太陰人群에 Le(a-b)Se型이 73.3%, 少陰人群에 Le(a-b+)Se型이 87.3%, 少陽人群에 Le(a+b)se型이 73.8%로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體質類型	臨床特徵												
正常質	體壯力強	面色潤澤	胃納佳	耐寒暑	口微乾	二便調	脈有力	舌正					
晦澁質	膚色晦滯	口脣色暗	眼眵暗黑	肌膚甲錯	絲縷癢痕	痞悶作脹	脈沈澁緩	舌質青紫					
臃滯質	體形肥胖	中脘痞滿	口甜粘	身重如裹	大便不實	口乾不飲	胸滿昏眩	脈濡或滑	舌苔多膩				
燥紅質	形弱消瘦	口燥咽乾	內熱便秘	尿黃短少	飲不解渴	少眠心煩	五心煩熱	喜涼飲	耳鳴聾	脈細弦數	舌紅少苔	或無苔	
遲冷質	形體白胖	面色不華	形寒怕冷	脣淡口和	四肢冷	肌冷自汗	大便稀溏	夜尿清長	毛髮易落	耳鳴聾	喜熱飲	脈沈無力	舌淡 脾嫩齒印
倦眊質	面色眊白	氣短懶言	乏力暈眩	心悸健忘	脫肛感	動輒汗出	子宮下墮感	手易麻	月經淡少	脈細弱無力	舌淡		

33) 송일병의, 上揭書, p.139

34) 梁基相, 類型體質鑑別의 免疫血液學的 研究, 서울, 경희한의대논문집, 경희대의과대학, 1983, pp.33~45

2) 常用中藥之體質宜忌舉例

藥物 體質 類型	宜	忌
晦澁質	川芎, 乳香, 沒藥, 三棱, 莪朮, 丹參, 桃仁, 紅花, 蒲黃, 五靈脂 等	地榆, 棕櫚 等
膩滯質	藿香, 蒼朮, 砂仁, 茯苓, 車前子, 滑石, 木通, 厚朴 等	熟地, 玄參, 麥門冬, 甘草, 肉蓯蓉 等
燥紅質	沙參, 麥冬, 天冬, 熟地, 生地, 石斛, 玉竹, 龜板, 百合 等	桂枝, 蒼朮, 羌活, 獨活, 肉桂, 鹿茸, 巴戟天, 白芥子 等
遲冷質	鹿茸, 仙茅, 羊藿, 菟絲子, 巴戟天, 肉桂, 附子 等	黃芩, 女貞子, 必甲, 葶藶子, 滑石 等
倦戕質	熟地, 首烏, 白芍, 當歸, 人參, 黃耆, 山藥, 大棗, 阿膠 等	羌活, 枳實, 萊菔子, 蘇子, 烏梢蛇, 全蝎 等

3) 常用方劑之體質宜忌舉例

方劑 體質 類型	宜	忌
晦澁質	血府逐瘀湯, 通竅活血湯, 越鞠丸 等	虛寒血證及初起挾有血瘀者 忌地榆丸 等
膩滯質	二陳湯, 苓桂朮甘湯, 五苓散, 藿香正氣散, 四妙散 等	溫病入營而夾濕者 忌清營湯 暑而夾濕者 不宜用王孟英 清暑益氣湯等
燥紅質	六味地黃丸, 葉氏養胃湯, 一貫煎, 補心丹, 清燥救肺湯 等	熱傷陰液, 舌質紅降 不宜用 黃連解毒湯, 瘡瘍陰虛有熱 忌陽和湯 等
遲冷質	金匱腎氣丸, 理中湯, 參附湯, 補肺湯 等	脾虛便溏者 忌用百合固金湯 肺痿屬於虛寒者 忌用麥門冬湯 等
倦戕質	人參養榮丸, 聖愈湯, 當歸補血湯, 補中益氣湯, 歸脾湯 等	氣虛陰虧者 忌用大承氣湯, 氣血虛弱者 不宜用麻黃湯, 陽虛失血者 不宜用犀角地黃湯 等

IV. 考察

韓醫學에서는 疾病에 대한 現象을 陰陽五行論을 중심으로 相生相剋의 循環關係로 生理, 病理현상을 설명하여왔다. 人體의 陰陽의 虛實 상태와 '疾病 自體의 屬性'에 관심을 둔 반면, 다른 한편으로 體質醫學은 疾病自體의 속성보다는 '人間個體의 特殊性'이 疾病에 대하여 어떠한 作用과 反作用을 일으키게 되는가 하는 데에 더 관심을 두었다.³⁵⁾

體質과 疾病의 關係는 《黃帝內經》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는데 《靈樞·五變》³⁶⁾에 “一時遇風 同時得病 其病各異 願聞其故” “匠人礪刀斷木 木之堅脆各異 皮之厚薄 汁之多少 斷折難易 況於人乎” 라 하여 즉 病邪가 人體에 侵入하거나 疾病을 發하는 것이 마치 나무의 堅軟不同처럼 그 體質에 따라서 難易가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와같이 같은 病因이라도 그 體質에 따라서 發病치 않을 수도 있고 發病했다라도 輕重淺甚이 다를 수도 있고, 또는 病의 進行이나 經過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人間의 各 體質을 研究하는 것은 매우 意味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體質類型에 관한 研究는《靈樞·二十五人篇》³⁷⁾에서 金木水火土 五行에 比喩하여 金型人, 木型人, 水型人, 火型人, 土型人의 五型人으로 分類하고 이를 다시 五音과 연관 시켜서 上角, 大角, 左角, 鈇角, 判角, 上徵, 質徵, 少徵, 右徵, 質判, 上宮, 大宮, 加宮, 少宮, 左宮, 上商, 鈇商, 右商, 左商, 少商, 上羽, 大羽, 少羽, 柷羽, 衆羽의 二十五人으로 분류하여 각각 그 外見上의 特徵과 態度를 論하였다.

《靈樞·通天篇》³⁸⁾에서도 또한 體質을 基本的으로 陰陽의 多少에 基準을 두고서 陰體質과 陽體質로 分別하고 이를 다시 太陰之人, 少陰之人, 太陽之人, 少陽之人의 四類型에 陰陽의 調和를 이룬 和平型을 合하여 五態人으로 分類하였다. 또 이

五態體型을 다시 細別하여 體質을 五行으로 五五-二十五의 25型으로 細分하고 各 類型에 대한 外貌와 特性을 논하였는데 各 特性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2. 內經五態人類型別 (靈樞 通天篇)

太陰之人	其狀黧然黑色 念然下意 臨臨然長大 臞然未僕
少陰之人	其狀清然顴然 固以陰賊 立而躁險 行而似伏
太陽之人	其狀封執謹清 反身戾臍
少陽之人	其狀杏里好動 多汗好搖 其兩臂肉上 黑而出于背
陰陽和平之人	其狀委委然 論論然 離離然 悅悅然 颯颯然 立而

그러나 《東醫壽世保元》 辨證論 未尾³⁹⁾에 “靈樞書中 有太少陰陽五行人論 而略得外形, 未得臟理 蓋太少陰陽人 早有古昔之見而未盡精究也”라고 李濟馬가 批判한 것과 같이 內經에서의 體質類型論의 思考는 너무 單편적으로 外的인 特性만을 分類하여 觀察하였을 뿐 이에 대한 臟理나 病證 藥理에 대한 제시가 없었다. 또한 自然과의 調和를 너무 強調한 나머지 人間이기 때문에 과생되는 制반 個人的·社會的 갈등요인이 壽命을 短縮시키고 疾病의 原因이 된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그 이후 醫學史上 여러 醫家들에 體質에 대한 本質의 問題에 대하여 言及을 하였다. 李東垣⁴⁰⁾은 人體의 本質은 中氣 즉 中州의 氣가 그 基本이라고 보았으나 이에 反해 朱丹溪⁴¹⁾는 “陽常有餘陰常不足”의 論理를 展開하여 人體의 本質이 陽多陰少한 것으로 여겼다. 또 이에 反해 張景岳⁴²⁾은 陽臟之人 陰臟之人 說을 두고 오히려 陽의 優位論을 展開하여 扶陽論을 強調하였고, 許浚⁴³⁾은 精氣神論을 主張하여 人體의 本質로 삼았다. 이와 같이 人體의 全般的인 本質적 探究를 통하여 疾病과의 關係를 알아내고 그 治法과 豫防法을 研究하였지만 이는 個體的 體質 糾明에는 부족하였다 여겨진다.

39) 李濟馬, 上揭書, pp.141~142

40)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73

41)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0.

42) 張介賓, 上揭書, p.39

43) 許浚, 東醫寶鑑,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p.109~201

35) 송일병의 上揭書 p.37

36) 楊維傑, 上揭書, p.343

37) 楊維傑, 上揭書, pp.440~451

38) 楊維傑, 上揭書, pp.500~509

李44)는 지금까지 莫然하게 觀念論에 머물러 있던 體質에 대하여 儒學的인 人間中心의 思考바탕에서 출발한 實證과 臨床의 土臺위에서 四象의 類型으로 體系化시켰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臟器의 大小強弱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差異에 따라 太陰人, 少陰人, 太陽人, 少陽人의 四類型이 있게 되고 따라서 그 體質類型에 따라 外貌, 心性, 行動 등은 물론 그의 生理, 氣質, 疾病, 病理, 藥物 및 飲食에 이르기까지 差異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개괄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 3. 四象體質에 따른 生理, 氣質, 疾病, 病理, 藥物 및 飲食의 特性

體質類型	臟腑 및 容貌	性品 및 氣質	行動 및 態度	飲食 및 藥物	易患疾病
太陰人	肝大肺小 健厚圓型	豪傑樂天 實業家	舉動慎重 言行有信	牛肉 大豆 麻黃 桔梗	中風 喘息
少陰人	腎大脾小 前屈短雅	消極內省 學究家	正確細密 優柔不斷	鷄肉 犬肉 人蔘 附子	胃腸病
太陽人	肺大肝小 端正長大	率直自尊 戰略家	意慾過乘 非妥協的	葡萄 조개 木果 五加皮	上氣症
少陽人	脾大腎小 上盛下弱	明敏 社交的 社交家	活發敏捷 不安定	豬肉 綠豆 地黃 柴胡	腎臟病 腰痛

各 體質別로 살펴 보면

1. 四象體質의 一般的 特性

1) 太陽人

① 體型和 氣象

上體가 發達되고 허리부위가 빈약한데 허리가 약하므로 오래 앉거나 서있지를 못하며 기대거나 높기를 좋아하며 오랫동안 걸지를 못한다.

② 容貌詞氣

太陽人은 머리가 크고 얼굴은 둥근 편이며 근육은 비교적 적으며 광대뼈가 나왔고 이마가 넓으며 눈은 빛난다.

③ 性情的 特徵

太陽人은 思考力이 뛰어나고 누구와도 잘 사귀

며 판단력과 진취적인 기상이 있어 영웅심과 자존심이 강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크게 忿怒를 일으켜 건강을 해치게 되며 頭腦가 明哲하고 創意力이 있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착상을 해내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2) 太陰人

① 體型和 氣象

太陰人은 원기둥 모양으로 外觀上 骨格이 굵고 비대한 사람이 많은데 허리가 굵고 배가 나와 다소 거만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걸음걸이는 무

게 있고 안정감있게 보이나 上體를 다소 수그리고 걷는 경향이 있다. 허리와 배가 발달되고 上體가 弱한 편이다.

② 容貌詞氣

太陰人은 居處에 禮義가 있고 修整正大하며 耳目口鼻의 運轉이 뚜렷하다.

③ 心性 特徵

太陰人은 말이 적어 조용한 편이고 이해타산을 따지는데 뛰어나다. 한번 시작한 일은 소처럼 꾸준히 노력하여 성취하는 持久力이 있어 크게 成功하는 일이 많으며 자기의 主張은 남이 듣거나 말거나 끝까지 소신껏 피력하며 말하는 게 조리가 없는 듯하나 끝자가 있고, 유머감각이 뛰어난 경우도 있다. 걸음으로는 짐작은 듯하면서도 속으로 음흉하여 좀체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미련스럽게 고집을 부리며 밀고 나

44) 李濟馬, 上揭書, pp.1~12, 137~142

가려는 우둔한 면도 있음을 알 수 있다.

3) 少陰人

① 體型과 氣象

上虛下實한 體型으로 엉덩이가 좀 큰 편으로 사다리 모양이다. 上下의 均衡이 잘 잡혀 있고 普遍的으로 體軀는 적은 편이다.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고 얇전하다. 上體보다도 下體가 發達되어 있다.

② 容貌詞氣

少陰人은 簡易小巧하여 態度에 自然性이 豊富하고 아담한 편이다. 容貌가 오밀조밀하고 잘 짜여져 있어 여자는 예쁘고 애교가 많다. 이마는 약간 나오고 耳目口鼻가 크지 않고 다소곳한 인상이다.

③ 心性 特徵

少陰人은 內性的이며 소극적이고 社交的인 데가 있어 겉으로는 부드럽고 겸손한 듯하나 속으로는 강인하고 조직적이며 치밀한 면이 있다. 또 自己本位로 每事를 생각하는 傾向이 있고 實利를 얻기 위해서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 면도 있다. 머리가 聰明하여 判斷力이 빠르며 조직적이고 事務的이어서 윗사람에게 잘 보이나 때로는 지나치게 아첨하기도 한다. 자기가 하는 일을 남이 손대는 것을 싫어하며, 남이 잘하는 일에 질투심이 강하고 마음이 다소 偏狹한 면이 있어 한번 꿈하면 여간해서 풀어지지 않고 남에게 吝嗇한 면이 있다. 자기의 利益을 위하여 志操를 버리는 機會主義者의 傾向이 많은 것도 이 體質로 보았다.

4.) 少陽人

① 體型과 氣象

少陽人은 역사다리 모양으로 가슴이 발달하고 臀部가 빈약한 편이다. 上體는 잘 發達되었으나 下體가 弱하여 걸음걸이가 빠르고 다소 輕妄스럽게 보인다. 가슴이 發達되고 허리 밑부분이 貧弱한 편이다. 걸음이 빠르고 몸을 흔든다. 어깨 부위가 발달하고 엉덩이가 조금 작은 편이다. 傷肺한 女子의 경우에는 어깨 부위가 좁은 경우도 있다고 보았다.

② 容貌詞氣

少陽人은 有剽滑利하니 즉 形狀이 勇敢하고 性質이 輕急하다. 머리가 작고 등근 편이며 앞뒤가 나온 사람도 있다. 눈매가 날카로워 보이고 입은

크지 않고 입술이 얇으며 턱이 뾰족하다. 살결은 희고 潤氣가 적고 땀은 그다지 흘리지 않는다. 주걱턱인 경우에는 매우 게으른 편이다.

③ 心性特徵

少陽人은 항상 밖으로 나다니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일이나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傾向이 있으며, 남의 일에 犧牲을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해 일하는데 보람을 느껴 의리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판단력이 빠르지만 계획성이 적어 일을 시작하기는 잘하나 하는 일이 잘 안될 때는 쉽게 諦念하는 면도 있다. 不義를 볼 때는 이해관계를 떠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를 처리하려는 강직한 성격이 있다. 그러나 상대가 悭吝하거나 사과해 올 때는 쉽게 용서하고 동정심을 갖게 된다. 솔직 담백하며 꾸밈이 없고 아첨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性質이 急하고 慾心이 적은 반면 침착하지 못하고 오락을 하는데 있어서도 깊이 생각하는 놀이는 별 소질이 없다.

또한 東武는 독창적인 病證論을 發明했는데 人體가 先天的으로 臟腑의 大小偏在를 지니고 있고 臟腑의 大小로 인해 큰 臟器는 그 機能이 더욱 實하기 쉽고, 작은 臟器는 그 機能이 더욱 虛하기 쉽기 때문에 病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각 體質의 사람들은 哀怒喜樂之氣의 升降에 의해 특수한 疾病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治法 또한 相異해진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先天的인 臟局偏在와 性情의 升降에 의하여 發生한 病證을 論함에 있어 心은 中央之太極으로 두어 臟器의 虛實을 脫皮하고 나머지 臟腑와 表裏寒熱을 結合함으로써 四象人의 表裏寒熱病證의 개념을 도입하여 陰陽升降의 緩速을 對待論理로 설명하였다.

2. 四象體質의 病症別 特性

1) 病證論 概括

① 太陽人 病證論

肺大肝小한 태양인의 병증은 크게 外感表病發腰脊病과 內觸裏病發小腸病으로 구분된다. 外感表病發腰脊病은 咳逆이라 通稱되는 것으로, 태양인은 肺의 呼散之氣가 盛하고 肝의 吸聚之氣가 不足한 上盛下虛한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肝의 부위인 腰脊이 陽性인 外邪를 받아들이기 쉬우므로 腰脊

部에서 病證이 발현되는 症候이다. 內觸裏病發小腸病은 즉 噎膈證으로 대표되는 病證으로 胃脘이 乾枯한 狀態에서 呼散之氣는 太過하나 中焦에서 吸入하는 氣운이 지탱하지 못하므로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吐出하여 噎膈證이 발생한다.

② 太陰人 病證論

肝大肺小한 太陰人の 病證은 크게 胃脘受寒 表寒病과 肝受熱 裏熱病으로 나뉜다. 胃脘受寒 表寒病은 太陰人이 肺小하므로 그의 腑인 胃脘의 上升하는 힘이 不足하고 肺의 呼散之氣도 不足하여 表出하는 氣운이 적으므로 생기는 病證이다. 반면에 肝受熱 裏熱病은 太陰人이 肝大하여 吸聚지기가 旺盛하므로 안으로 모으는 氣운이 많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내부에 鬱滯됨으로 인해 생기는 熱證이다.

③ 少陰人 病證論

腎大脾小한 少陰人の 病證은 腎受熱 表熱病과 胃受寒 裏寒病으로 大別된다. 이중 腎受熱 表熱病은 腎大하여 腎陰이 旺盛하므로 그의 腑인 大腸이 升陽作用을 하지 못하여 鬱滯됨으로써 발생한다. 胃受寒 裏寒病은 脾小하여 脾陽의 不足으로 인해 陰化되므로 升陽하는 氣運이 不足해짐으로써 발생하며 陰實之氣의 輕重에 의해 病證이 구분된다.

④ 少陽人 病證論

脾大腎小한 少陽人の 病證은 脾受寒表寒病과 胃受熱裏熱病으로 區分된다. 이 중 脾受寒表寒病은

少陽人이 脾大하기 때문에 脾속의 陽氣가 크므로 이것으로 인하여 脾속의 陰氣가 逼迫을 받아 下降하지 못하므로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 脾陰을 脾의 上 表陰이라 한다. 胃受熱裏熱病은 淸陽이 上升하지 못하여 발병하는데, 이 上升하지 못한 裏陽은 耗陽이요 火氣이다. 이는 腎小함으로 인해 陰虛되기 쉽고, 淸陽 곧 元氣가 頭面四肢까지 순조롭게 올라가지 못하고 熱化되어 病證이 나타난다.

이를 종합하면 體質에 따른 發病部位와 病理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

2) 發病部位

① 太陰人은 肺系의 胃脘, 舌, 耳, 頭腦, 皮毛 等の 弱화로 인하여 發病한다. 또한 外感腦佳頁하고 內觸胃脘病한다.

② 少陰人은 脾系의 胃, 乳, 目, 背, 筋 等の 弱화로 인하여 發病한다. 또한 外感背部하고 內觸胃腸한다.

③ 少陽人은 腎系의 大腸, 前陰, 口, 膀胱, 骨 等の 弱화로 인하여 發病한다. 또한 外感膀胱하고 內觸大腸病한다.

④ 太陽人은 肝系의 小腸, 臍, 鼻, 腰脊, 肉 等の 弱화로 인하여 發病한다. 또한 外感腰脊하고 內觸小腸한다.

3) 病理關係

① 太陰人은 胃脘寒邪에 대한 抵抗力이 弱한 者로서 萬若에 寒邪가 侵犯時에 完除하지 않으면 長久한 期間을 潛伏하다가 抵抗力이 弱한 때가 되면

四象人病證圖表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表病	表	鬱狂證	少陽傷風證	太陽寒厥證	咳逆證
	裏	亡陽證	亡陰證	肺燥寒證	
裏病	表	太陰證	胸膈熱證	肝燥熱證	噎膈證
	裏	少陰證	陰虛午熱證	燥澁便閉證	

4) 四象體質에 따른 發病 證候

體型	疾病 및 證候
太陰人	呼吸系病(肺系) 循環系病(心系) 中風 喘息 怔忡 胸膈病 目睛內疼
少陰人	消化系病(胃腸系) 精神系病(情緒) 腹痛 消化不良 心志不安 太息
太陽人	肝系病(淨血化毒不能病) 心氣急迫 噎膈反胃 解休 食中毒 內氣上衝
少陽人	泌尿生殖系病(腎膀胱系) 尿數不利 精力衰敏 腰痛 下肢無力 便堅

5) 四象體質의 病證에 따른 治法·治方

太 陰 人			太 陽 人			
表病證	太陽寒厥症	肺陽升氣法	麻黃發表湯——脊椎表病 熊膽散——寒厥症 寒多熱少湯	解休症	健脚益髓法	五加皮壯脊湯；戒深哀 遠嗔怒
	肺燥寒症		太陰調胃湯——食滯痞滿 脚腿無力 補肺元湯 調胃升清湯 麻黃定喘湯——哮喘 麻黃定痛湯——胸腹痛 鹿茸大補湯——虛弱人表寒證			
裏病證	肝燥熱症	清肝燥熱法	葛根解肌湯——陽毒發斑 熱多寒少湯——消渴虛勞夢泄 清心連子湯——腹痛泄瀉 拱辰黑元丹——虛弱人裏證	噎膈症	補小腸吸氣	鯽魚獼猴藤植腸湯 遠嗔怒 斷厚味 補肝飲
	燥澁閉症		清肺瀉肝湯——便秘 皂角大黃湯——憎寒壯熱 葛根承氣湯——燥澁證			
少 陰 人			少 陽 人			
表病證	鬱狂症	升陽益氣法	芎歸香蘇散——鬱狂初證 川芎桂枝湯 八物君子湯 十全大補湯——鬱狂末證 獨參八物湯	少陽傷風症	表陰降氣法	荊芳敗毒散 荊芳導赤散 荊芳瀉白散——結胸證 導赤降氣湯
	亡陽症		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亡陽初證 升陽益氣湯 黃芪桂枝附子湯 人參桂枝附子湯——亡陽末證 升陽益氣附子湯			
裏病證	太陰症	裏陰降氣法	理中湯 白何烏附子理中湯 十二味寬中湯 香砂養胃湯 蘇合香元 人參陳皮湯	胸膈熱症	清陽上升法	涼膈散火湯——上消 忍冬藤地骨皮湯——中消 地黃白虎湯——裏熱便閉 陽毒白虎湯
	少陰症		官桂附子理中湯 獨參附子理中湯 人參吳茱萸附子湯 吳茱萸附子理中湯			陰虛午熱症

發病하려 하는데, 이는 臟腑의 先天的인 性作用때문이라 사료된다.

② 少陰人은 胃系에 加해진 寒毒과 腎系에 加해진 熱毒과 脾系에 加해진 寒毒等 惡性作用의 進度에 따라 腎局과 脾局의 氣血의 輪廻作用이 不完全하게되어 腎系의 陽性作用과 脾系의 陽性作用과의 一升一降이 衰退하게 되므로 發病함을 알 수 있다. 이는 胃受寒毒으로 因하여 腎系와 脾系와의 陽性交流作用이 中斷되기 때문이다. 故로 腎에서 熱을 내어 溫胃冷하면 無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③ 少陽人의 內傷은 脾臟系의 陰氣와 腎臟系의 陰氣는 胃府系의 强한 熱邪로 因하여 一升一降이 不能함으로써 그 機能이 敗하니 萬病이 發生한다. 또한 外感은 主로 風, 寒, 涼, 燥 등의 影響으로 因하여 萬病이 發生한다. 故로 脾局의 陰氣와 腎局의 陰氣의 一升一降作用이 胃局의 陽氣를 調節할 수 있으면 無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體質辨證에 관여하는 여러 項目들이 部分的이며 局所的인 敘述로서 이루어져 있으나 실제 東武가 주장한 辨證概念은 이러한 要素들을 綜合하여 전체적인 觀點에서 그 象을 取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러 辨證要件內에는 전체적인 개념에 근거한 내용과 그렇지 못한 局所的인 내용이 相雜混入되어 있으므로 辨證에 임함에 있어서 이들 間에 서로 다른 比重을 두어야 할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東武의 四象醫學說이 創案된 이래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많은 後代 醫家들이 그들의 經驗및 實驗에 의거한 여러 辨證 基準를 제시하고 있어 각기 그 內容과 問題點을 살펴보도록 한다.

體診은 종래에는 없던 診察法으로 簡便하고 實證化된 方法이라는 點에서 우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尺度法은 體質마다 人體의 發達한 部位나 虛弱한 部位가 차이가 있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體質을 診斷하는 方法으로 하나의 假說이며 研究가 進行되는 상태에 있다.

대체로 陽人은 胸廓部位가 크고 陰人은 骨盤部位가 크다 볼 수 있으나 이 特徵이 잘 드러나는

것은 주로 少陽과 少陰人에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갈비뼈가 脊椎에 붙은 角度를 가지고도 體質 判斷에 참고할 수 있는데, 갈비뼈와 척추가 이루는 각이 鈍角이면 太陰人 혹은 少陽人이고 銳角이면 少陰人으로 볼 수 있다.

四象頭部 觸診法⁴⁵⁾은 四象人의 頭部의 筋肉皮質이 乾强, 厚軟, 薄强이라고 論한 것은 強弱度를 비교하여 말하는 것이다. 太陰人은 주로 頭部顔面이 圓形四角形이며 물렁물렁하고, 少陰人은 대체로 頭部와 顔面이 圓三角形이며 頭皮는 薄强하여 단단하다. 少陽人은 圓突出形이며 頭皮는 乾强하고 太陽人은 頭形이 體身에 比하여 圓大形이며 頭部의 筋肉皮質은 乾强함을 알 수 있다. 이는 李濟馬가 太陰人의 肌肉은 堅實하고, 少陰人의 肌肉은 薄弱하다고 비교한 것과 같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方法들은 모두 內心이니 病證이니 하는 것은 다 생략하고 外貌하나만 가지고 體質鑑別을 하는 것이므로 不完全한 것이라 생각되며 이와 같이 尺度法으로 體質을 區分하는 것은 簡便하다는 長點이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 점을 勘案하여 利用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外形이나 性格의 특징을 이용하여 體質을 診斷하는 方法이 비교적 主觀的인 性向이 많은 까닭에 患者에게 藥物을 투여하고 그에 대한 反應을 觀察함으로써 體質을 診斷하는 方法이 藥診法이다. 넓은 의미로는 體質에 따라 많이 응용되는 모든 方劑가 藥診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아울러 정확한 辨證施治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體質적 대표적 方劑라 할 수 있는 太陰人의 太陰調胃湯 調胃升清湯 熱多寒少湯 清肺瀉肝湯 清心蓮子湯 등의 處方과 少陰人의 補中益氣湯, 藿香正氣散, 十二味寬中湯 香砂養胃湯 등의 處方 그리고 少陽人의 涼膈散火湯, 荊防地黃湯, 荊防敗毒散 六味地黃湯 등의 方劑들이 모두 藥診의 意味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藥物과 方劑의 反應에 있어 그에 대한 效果의 客觀的 反應의 정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鍼診法은 鍼에 대한 각 體質의 反應을 살피는

45) 朴爽彦 上揭書 pp.368~385

方法으로 李濟馬는 鍼치료에 대하여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少陰人 泛論⁴⁶⁾ 말미에 “내가 듣건대 少陰人 中氣症 舌卷不語한 사람에게 合谷穴을 刺鍼하니 效果가 있었다. 이를 볼 때 體質에 따라 有效한 鍼치료의 方法이 있을 것으로 思料되나 나는 이를 提示하지 못하였으니 後代에 이 方面에 관심을 가진 有能한 사람이 있으면 이에 대한 研究를 하기 바란다.”는 言及이 있다. 醫源論⁴⁷⁾에서도 “證候의 辨證에 있어서도 病의 所在가 腹背表裏中 어디에 있는지를 診斷하는 것이 중요하지 十二經絡上의 所在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表現등을 살펴보면 經絡說의 否定的 見解의 暗示가 鍼治療에 대한 그의 理論과의 관련을 制限시켰을 可能性이 많다.

이로부터 지금까지 臨床 제가들에 의해서 類型 體質에 따라 응용되는 鍼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비교적 체계를 갖추어 臨床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鍼法으로 李炳幸의 太極鍼法과 權度沅의 體質鍼法을 들 수 있다.

李의 太極鍼法은 手少陰心經에서 主治穴을 取하고, 大 소관계에 있는 臟器를 염두에 두고서 官氣를 이용하여 다스리고, 아울러 각 해당 經絡상의 原穴을 並行治療하는 方法이며, 權의 體質鍼法은 壽世保元의 病證구분을 經絡과 연관시켜 治療방법을 難經의 母子官使論에 입각하여 모색한 治療體系이다.

그러나 이러한 理論은 경우에 따라 臨床에 응용하여 有效한 治療效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나, 理論的인 面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太極鍼法과 體質鍼法 모두 既存의 臟腑概念과 四象臟腑論의 藏象基準이 지니는 차이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臟腑名稱이 동일한 用語로 表記되어 있다는 한가지 理由만으로 그대로 經絡體系를 代入하여 圖式化 하였다가 것이다.

둘째, 太極鍼法에서는 少陽人 治療에 있어서 臟腑의 五行配屬을 脾는 火, 心을 土와 對應하여 應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臟腑가 體質

에 따라 基本的인 臟腑의 特徵마저도 屬性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는 것이다.

셋째, 體質鍼法에서는 太極鍼法에서와 같은 두 번째 문제는 없으나 辨證의 基準을 철저히 脈診에만 依存하고 있다는 點이다. 물론 脈診은 韓醫學固有의 四診法 中 하나로 중요한 부분인 점은 否認할 수 없고 上下陰陽과 部位를 關聯說明할 수 있는 可能性은 어느 정도 認定할 수 있으나 客觀的 水準에서 누구라도 韓醫學者라면 認定할 수 있는 指標가 表示되기 前까지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 八體質 學설은 鍼治療를 위한 體質分類法으로 四象醫學과 큰 差는 같으면서도 다른 면이 적지 않으므로 많은 論爭과 關心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極端的인 入場을 止揚하고 보다 客觀的이고 신중한 평가에 임할 것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脈診法은 韓方診斷에서 四診의 한 분야인 診脈을 이용하여 體質을 判斷하는 方法에 해당한다. 診脈이란 氣血의 循環 상태를 認知하는 것이며 動脈의 活動 상태를 보아 陰陽虛實의 異常有無를 判定하는 것으로 辨證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脈의 종류도 27種이나 되며 그 범위가 대단히 넓기 때문에 難知者脈이라 하여 診脈만으로 모든 병을 아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脈診이 지니는 문제를 朝鮮後期の 丁若鏞등이 批判한 것과 같은 특정 부위에서만 脈의 變化를 內臟病과 연결, 설명할 수 있다는 根據가 미흡한 점이 현실적으로 문제될 수밖에 없고, 等身寸을 감안한 脈의 樣態의 차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를 받아들이고 어떠한 점을 排除해야 될지 뚜렷한 尺度가 아직은 提示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동일한 病證에 대한 韓方文獻的 技術에 있어서도 가장 多樣한 內容으로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脈診임을 감안할 때 이는 脈診이 主觀的인 傾向을 다분히 內包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반증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可視化 내지는 客觀化할 수 있는 方案이 하루속히 定立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6. 李濟馬 上揭書 p.57

47. 李濟馬, 上揭書, p.26

또한 體質脈診에 있어서도 東武의 四象理論體系를 바탕으로 출발하지 않아 다소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四象醫學의 올바른 運用을 위해서 韓方診療에 있어서 제외될 수 없는 중요한 脈診에 대해 많은 연구가 따라야 한다 생각한다.

O-RingTest의 방법은 客觀적으로 정확한 體質鑑別을 위한 한 시도로 高價의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누구나 簡便하게 體質을 鑑別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아직 原理자체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으며 또한 검사를 받으려는 환자가 손가락에 힘을 주는데, 최선을 다하여 힘을 주지 않는다면, 정확한 검사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환자가 손가락에 힘을 주는데 최대한으로 힘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개발하면, 좀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赤外線 體熱 撮影診斷器를 이용한 분류방법은 四象醫學說의 四焦概念에 의거하여 人體의 寒熱氣升降作用이 體質의 形成과 密接한 關聯을 맺고 있다는 것을 응용하여 四臟局의 先天的 盛壯과 孤弱을 檢證할 수 있다고 보는 방법이다. 上焦는 溫氣가 퍼지고 中上焦는 熱氣가 모이는 곳으로 盛壯하다면 thermogram上 상대적으로 높은 溫度分布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太陰人에 있어서는 肝이 大하고 涼氣가 平淡下行하지만 吸聚之氣가 發達하였기 때문에 裏에 燥熱을 形成하여 寒證과 熱證이 同居하는 特性이 있어서 他 體質의 寒熱分布와는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被檢者의 平素 狀況에 따라 熱이 많을 수도 있고 寒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四象醫學에서는 小腸이지만 既存醫學에서는 大腸部位인 臍下方의 溫度가 낮게 나타날 것으로 볼 수 있다. 少陰人은 寒氣가 下降하기 때문에 下肢도 잘 것이지만 上中下焦가 모두 낮을 것이며 특히 腎臟의 上昇力이 약하기 때문에 面部의 溫度가 상대적으로 더 낮을 것이라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少陰人에게서 溫度分布가 가장 낮았으나, 太陰人과 少陽人의 차이는 그 意義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각 증상으로서의 熱感과 客觀的 指標로서의 體熱간의 차이가 있어 體熱에 근거하

여 體質을 분류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思料된다.

이 외에 최근 梁⁴⁸⁾이 體質의 自律神經系, 內分泌係, 血液의 群 特異性과의 聯關說에 着眼하여 免疫學적으로 血液과 唾液의 特定反應物質과의 反應을 이용한 類型體質 鑑別法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다양한 방법의 시도는 體質辨證을 客觀化 시키고자 하는 발전적 노력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상에 列舉한 方法들이 現段階에서는 東武의 辨證論을 능가하는 鑑別法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여러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제 臨床上 辨證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東武가 주장한 이론에 입각하여 충분히 熟考한 연후에 이러한 방법을 參酌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V. 結 論

四象體質의 概念, 病理의 特性 및 鑑別方法을 考察하였던 바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東武의 四象醫學以前의 體質類型辨證은 外貌와 態度의 特性 또는 전체적인 陰陽의 偏重에 重點을 두었을 뿐 臨床活用に 관한 言及은 거의 없었다.

2. 東武의 四象體質辨證 方法은 生命體로서 人間이 갖는 外形과 心性의 特徵을 바탕으로 四象類型으로 區分하였다.

3. 東武의 病證論은 人體의 先天的인 臟局偏在와 性情의 升降에 의하여 發生하는 病證을 論한 것으로 心을 中央之太極으로 두어 臟器의 虛實을 탈피하고 나머지 臟腑와 表裏寒熱을 結合하여 四象人의 表裏寒熱病證의 개념을 도입하여 陰陽升降의 緩速을 對待論理로 설명한 것으로, 太陽人은 外感表病發腰脊病하고 內觸裏病發小腸病하며, 太陰人은 胃脘受寒 表寒病하고 肝受熱 裏熱病하며, 少陰人은 腎受熱 表熱病하고 胃受寒 裏寒病하며, 少陽人은 脾受寒表寒病하고 胃受熱裏熱病한다 하였다.

48) 梁基相, 類型體質鑑別의 免疫血液學의 研究, 서울, 경희한의대는문집, 경희대한의과대학 1983 pp.33~45

4. 後代 여러 醫家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尺度法, 頭部觸診法, 藥診法, 針診法, 脈診法, 오링테스트, 體熱攝影診斷器에 의한 體質分類法, 免疫血液學的 診斷法등의 辨證方法은 대부분 東武의 四象醫論中 附分의인 內容에 重點을 둔 局所의 觀察法으로 볼 수 있었다.

5. 鍼診, 藥診 및 理化學的 方法을 통한 變證方法은 東武의 綜合的 觀察 方法을 뒷받침할 수 있는 方向으로 研究 開發하는 것이 客觀化하는데 있어 바람직한 方法으로 思料된다.

VI. 參考文獻

1. 朴英培·金台熙, 韓方診斷學〈Ⅱ〉辨證, 서울, 成輔社, 1986, p. 149
2. 盧正祐, 四象醫學總論,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 1972. pp.23~29 pp. 32~48
3. 張介貧,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8. pp.23~29
4. 金聖勳 外2人, 東醫病理學, 대전, 도서출판한림원, 1994, pp. 274~276
5. 楊維傑, 黃帝內經 靈樞釋解: 台北 藥君出版事業有限公司 1977. pp.440~451. pp.500~509
6.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杏林出版社. 1986 pp.137~142
7. 宋一炳外,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p.142~235
8.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第42期 卒業準備委員會, 精選韓國의 體質醫學,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p. 18~36
9. 許萬會, 四象人의 形態學的 圖式化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1
10. 朴爽彦, 東醫四象大全, 서울, 醫道文化社, 1977, pp.52~84
11. 金己培, 太極針法, 서울, 第7次 針灸學術大會 論文抄錄, 大韓韓醫學會, 針灸分科學會, 1983. pp. 24~36
12. 權度源 體質鍼治療處方에 관한 研究, 서울, 東西醫學研究一世紀紀念論文集, 東西醫學研究所. 1975. pp.148~160
13. 權英植, 四象方藥合編, 서울, 杏林書院, 1973. pp. 5~30
14. 大村惠昭, 圖說바이디지탈 오-링 테스트의 實習, 일본, 醫道の 日本社, 1986
15. 盧聖鎬, 體質藥物을 이용한 오-링테스트에 의한 體質鑑別에 對한 考察, pp.8~17
16. 鄭元朝, 四象體質鑑別에 있어서 韓藥을 이용한 오링테스트 결과 보고,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第14卷 第2號
17. 池圭鎔外 3人, 赤外線 體熱 攝影診斷器를 이용한 體質分類와 病症診斷에 關한 結果보고,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제14권 제2호
18. 梁基相, 類型體質鑑別의 免疫血液學的 研究, 서울, 慶熙韓醫大論文集, 慶熙大韓醫科大學, 1983. pp.33~45
19. 匡朝元, 中醫病理研究,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9, pp.77~85